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빈

면

머 리 말

當研究院에서는 지난 3월 28일 農林水産部와 共同으로 지난 年末 以後 繼續 強勢를 보이고 있는 産地 소값과 송아지價格 安定對策을 討議하기 위하여 「쇠고기 需給 및 價格安定에 대한 公청회」를 開催하였다. 討論을 위하여 「쇠고기 需給 價格 및 流通改善方向」과 「소값變動과 畜우産業의 發展方向」 두 편의 發題發表가 있었다.

公聽會에는 畜협의 組合長, 韓牛改良團地 양축가, 道畜政課長 및 大型 流通業體의 韓牛肉販賣擔當者 등 200여명이 參席하였으며, 討論者로서는 學界, 官界, 生産者 團體, 流通業體, 消費者團體에서 11명이 參加하여 最近 소값상승에 대한 原因과 향후 展望 및 政府의 對策 등에 관하여 진지한 討議가 進行되었다.

여기에 실린 資料는 두 편의 發題發表資料와 討議者들의 討議內容을 收錄 整理한 것이다. 여기에는 소값變動의 原因과 쇠고기需給展望, 그리고 推進中인 政府의 市場流通改善對策에 관한 資料와 討議內容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畜우산업의 問題와 發展方向 등에 대한 各界의 意見이 생생하게 收錄되어 있어서 관심있는 分들에게 一助가 되리라 믿는다.

1991년 4월

院 長 許 信 行

빈

면

목 차

주제발표

쇠고기 수급·가격 및 유통개선방향(김경남)	3
소값변동과 축우산업의 발전방향(유철호)	19
토 의	33
개 회 사	117
참석자 명단	121

빈

면

쇠고기 수급·가격 및 유통개선 방향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장 : 김 경남

I. 현 황

1. 축산 여건의 변화

- 농업조수입중 축산조수입의 비중은 크게 증가

	농가소득	농업조수입(A) (농업소득+경영비)	축산조수입(B)	대비(B/A)
'70(A)	256 천원	8	14	. %
80	,693	,342	84	1.1
89(B)	,437	8,12	1,1	1.8
증가율(B/A)	37 배	33	104	

- '89.10 GATT/BOP 졸업으로 '97.7월까지 아직 개방되지 않은 78개 축산물의 개방예시 불가피(1차 : '92~'94, 2차 : '95~'97)
 - UR타결시 높은 관세부과 및 10년 이상의 이행기간으로 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확보 가능
- 우리 나라 축산업 구조가 영세·취약하며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 축산폐수 규제강화, 수입개방 품목의 점차적 확대 등으로 어려움은 상존
- 그러나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라 육류소비는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수입축산물과의 가격차이가 있으나 품질경쟁 예측이 가능함에 따라 농가의 주소득원으로서의 잠재력은 보유
 - ⇒ 축산종합발전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축산업 구조 조정을 빠른 기간내 이룩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의 주요 품목

으로 육성 필요

2. 축산물 소비동향

- 육류 총소비량은 '81년 394천톤에서 '90년도에 853천톤으로 2배 이상 신장
 - 돼지고기 소비량이 210천톤에서 505천톤으로 2.4배 증가
 - 쇠고기는 최근의 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여 '90/'85 대비 소비 증가율이 돼지고기 소비증가율을 상회
 - 닭고기, 계란은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증가율보다 다소 저조

〈육류 소비량 변화 추세〉

단위 : 천톤

	'81(A)	'83	'85(B)	'87	'89	'90(C)	대 비	
							C/A	C/B
육류 소비량	393.6	530.3	592.8	665.2	769.9	853.5	217	144
쇠 고 기	93.2	115.5	120.3	151.9	143.3	177.0	190	147
돼지고기	209.8	294.9	346.3	372.6	471.7	504.8	241	146
닭 고 기	90.6	119.9	126.2	140.7	154.9	171.7	190	136
계 란	243.7	271.5	296.5	361.5	380.5	393.3	161	133
우 유	557.7	728.6	972.3	1,424.8	1,641.5	1,879.0	337	193

- 국민 1인당 소비량은 10.1kg ('81)에서 19.9kg ('90)으로 2배 신장
 - 쇠고기 소비량은 2.4kg에서 4.1kg으로 늘어났으나 '87년도의 공급과잉, '89년도의 공급부족 등의 여건에 따라 소비량은 회복을 보이고 있음.
 -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의 소비 수순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음.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

단위 : kg

	'81(A)	'83	'85(B)	'87	'89	'90(C)	대 비	
							C/A	C/B
육류 소비량	10.1	13.3	14.4	15.8	18.2	19.9	%	
쇠 고 기	2.4	2.9	2.9	3.6	3.4	4.1	171	141
돼지고기	5.4	7.4	8.4	8.9	11.1	11.8	219	140
닭 고 기	2.3	3.0	3.1	3.3	3.7	4.0	174	129
계 란	6.3	6.8	7.2	8.6	9.0	9.2	146	128
우 유	14.4	18.3	23.8	34.3	38.7	42.8	297	180

- 일본과의 육류소비 수준을 비교하면 같은 소득 수준에서 우리 나라 소비성향이 높으며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소비량이 많은 편임.

〈주요 국별 축산물 소비량 (국민 1인당 소비량)〉

단위:지육kg

	미 국	영 국	호 주	일 본	대 만	한 국
육류 총소비량	105.4	62.3	77.3	38.7	60.4	27.1(19.9)
- 쇠 고 기	45.1	21.3	37.8	8.5	2.2	5.7 (4.1)
- 돼지고기	30.4	26.0	17.7	16.9	38.0	15.7(11.8)
- 닭 고 기	29.9	15.0	21.8	13.3	20.2	5.7 (4.0)

※ 한국은 '90, 기타 국가는 '89년 (잠정치), ()는 정육기준임.

〈한·일간 소득수준에 따른 육류 소비량 변화 비교〉

지육: kg

1인당 국민소득	한 국					일 본				
	해당 년도	1인당 육류 소비량				해당 년도	1인당 육류 소비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2,000\$ 수준	'83	4.0	9.9	4.3	18.2	'71	3.4	8.4	5.4	17.2
3,000 "	'87	5.0	11.7	4.7	21.4	'72	3.7	9.2	6.1	19.0
4,000 "	'88	4.7	13.5	5.0	23.2	'74	3.6	10.6	6.8	21.0
5,000 "	'90	5.7	15.7	5.7	27.1	'76	3.9	11.3	7.7	22.9

3. 쇠고기 공급 구조의 변화

○ 쇠고기 국내자급도는 '87년의 완전자급에서 '90년도의 54%수준 등 큰 기복을 보이고 있음.

- '87년도에 쇠고기 100% 자급이 달성되었으나 이는 '83~'84 소값의 큰폭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소 사육농가에 손실을 주는 결과를 가져왔음.

- '90년도의 쇠고기 자급률이 54%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85~'87까지의 가격하락에 따른 사육두수의 감소와 예상치 못한 수요증가에 따른 쇠고기 수입증가에 기인함.

- 최근 쇠고기 수입량 증가와 관련하여 자급도 향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나 완전 자급을 지향할 경우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을 초래

- 적절한 수준의 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89년 이후 높은 가격수준이 장기간 지속됨으로 해서 향후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있음.

(농가의 암소출하 기피에 따른 암소도축의 급격한 감소, 가임암소 수의 증가 등)

- 더욱이 쇠고기는 아직 개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쇠고기 협상결

과 년도별로 일정 물량을 수입해야 되는 의무사항 이행 등을 고려할 때 소사육두수는 연평균 소비증가를 수준의 증식 규모가 바람직함.

〈쇠고기 수급동향〉

단위 : 천톤

	'81	'83	'85	'87	'89	'90
전체소비량	93.2	115.5	120.3	151.9	143.3	177.0
- 국내산	69.3	66.1	115.6	151.9	90.0	94.9
- 수입육	23.9	49.4	4.7	-	53.3	82.1
자급률(%)	74	57	96	100	63	54

- 축종별 쇠고기 공급량은 한육우 비율이 감소되고 젓소 공급량이 증가되고 있음.
- '81년도의 한육우 도축두수는 총도축두수의 84%를 점유하였으나, '90년도에는 58% 수준으로 낮아지는 반면, 젓소(암, 수) 도축두수는 16%에서 42%로 크게 증가

〈축종별 도축동향〉

단위 : 천두

	'81(A)	'83	'85(B)	'87	'89	'90(C)	대 비	
							C/A	C/B
한 우	315 (81%)	220 (69)	556 (75)	803 (80)	397 (70)	311 (56)	% 99	56
육 우	13 (3)	30 (10)	67 (9)	31 (3)	12 (2)	10 (2)	77	15
젓 소	62 (16)	67 (21)	123 (16)	171 (17)	158 (28)	233 (42)	376	189
계	390 (100)	317 (100)	746 (100)	1,005 (100)	567 (100)	554 (100)	142	74

※ () 내는 구성비임.

- 특히 '90년도의 젖소 공급량이 많은 이유는 분유과잉재고 해소를 위한 저능력우 도태가 활발한데 그 요인이 있었음.
- 한우 암소의 도축두수는 산지 소값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바, '83년의 소값이 크게 상승할 시기에는 10% 수준이었으나 '87년도 소값하락시에는 48%로 크게 높아져 소값 수준이 암소사육(번식) 정도를 결정하고 있음.
- 반면 젖소는 암소도축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경향으로 이는 우유과잉 생산체계가 장기화됨에 따라 저능력우 도태가 활발한데 그 원인이 있었음.

<축종별, 성별 도축 동향>

단위 : 천두

		'81(A)	'83	'85(B)	'87	'89	'90(C)	대 비	
								C/A	C/B
한우	암	72 (23) %	21 (10)	190 (34)	383 (48)	167 (42)	131 (42)	182	69
	수	243 (77)	199 (90)	366 (66)	420 (52)	230 (58)	180 (58)	74	49
	계	315(100)	315(100)	556(100)	803(100)	397(100)	311(100)	99	56
육우	암	5 (38)	6 (20)	38 (57)	17 (55)	6 (50)	4 (40)	80	11
	수	8 (62)	24 (80)	29 (43)	14 (45)	6 (50)	6 (60)	75	21
	계	13(100)	30(100)	67(100)	31(100)	12(100)	10(100)	77	15
젖소	암	27 (44)	21 (31)	39 (32)	67 (39)	69 (44)	115 (49)	426	295
	수	35 (56)	46 (69)	84 (68)	104 (61)	89 (56)	118 (51)	337	140
	계	62(100)	67(100)	123(100)	171(100)	158(100)	233(100)	376	189
계	암	104 (27)	48 (15)	267 (36)	467 (46)	242 (43)	250 (45)	240	94
	수	286 (73)	269 (85)	479 (64)	538 (54)	325 (57)	304 (55)	106	63
	계	390(100)	317(100)	746(100)	1,005(100)	567(100)	554(100)	142	74

※ ()내는 성별 구성비임.

- 도축체중은 소값이 하락하면 체중이 낮아지고 가격이 상승하면 체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바, 이와같은 현상은 가격에 반응하여 출하시기가 단축 또는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서 고급육 생산을 감안한 출하체중의 증가 현상은 바람직함.

〈연도별 도축체중 변동상황〉

단위 : kg/두

	'81	'83	'85	'87	'89	'90	'91.1
한 우	392	439	397	374	394	411	435
육 우	408	433	406	412	450	473	526
젖 소	434	474	458	460	469	465	480
평 균	399	445	408	390	416	435	457

4. 소값 변동의 특징

○ 소값 주기의 특성

- 가격 상승기간이 하락기간보다 길어지는 경향을 보임(상승 : 4~5년, 하락 : 3~4년).
- 가격상승 → 사육두수 증가 → 가격하락 → 사육두수 감소 → 가격상승의 반복형태
- 가격상승시기에는 사육규모 증대, 출하체중 증가, 신규 사육농가 증가 등으로 출하가 부진하여 지속적인 가격상승 현상이 나타남.
- '83년 소값 상승시기에는 큰암소와 암송아지가격이 수소가격을 상회하였으나 금번 가격 상승기에는 수소가격이 주도
 - '83 : 최고기 소비 수요보다는 농가의 입식 수요(송아지 생산)가 크게 증가
 - '90 : 농가의 소 입식 수요보다는 최고기 소비 수요의 증가로 수소가격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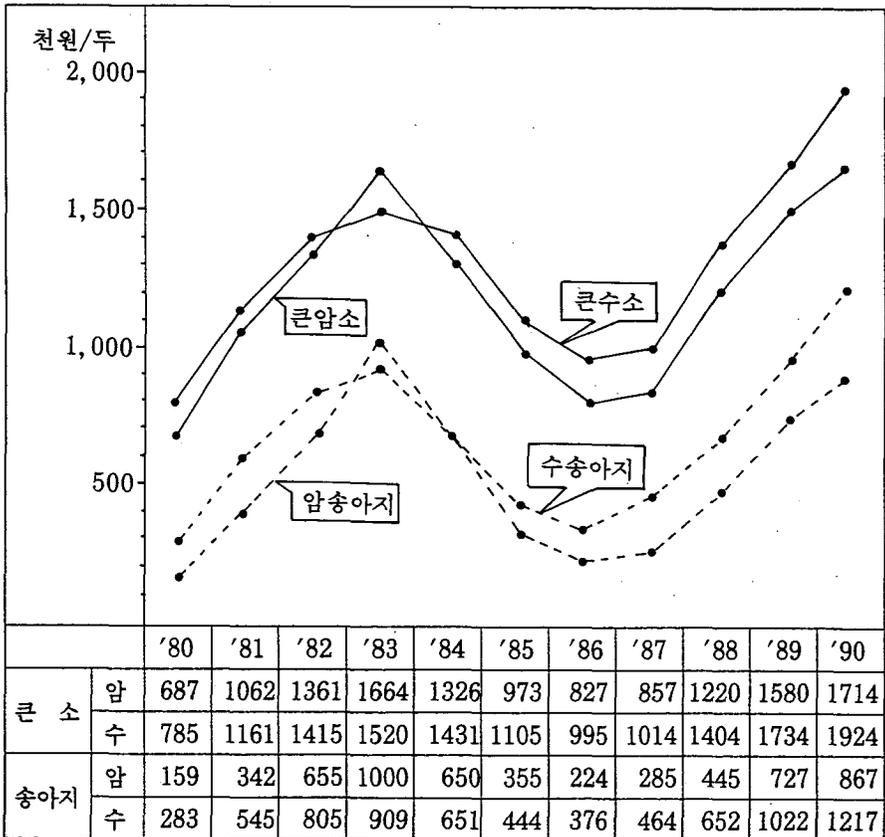
○ 소값 상승시기에는 큰소와 송아지가격의 격차가 적고, 가격하락 시기에는 격차가 커짐.

- 소값 상승시기 : 송아지/큰소 가격차 : 40% 이하 ('83, '89, '90)

- 소값 하락시기 : 송아지/큰소 가격차 : 55% 이상 ('80, '86, '87)

* 가격 상승시에는 큰소에 비하여 송아지가격 상승률이 높고, 가격하락시에는 송아지가격 하락률이 큼.

<소값 동향>



II. 문제점

- 축산규모의 영세, 시설의 낙후 등 구조적 취약
 - 영세, 다수 농가의 생산참여로 수급조절기능 수행이 어려움.
 - 최근에는 축산폐수 단속강화,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여건은 악화
 - 수입 축산물과의 가격, 품질 경쟁에서 불리
- 축산물 가격의 주기적 등락으로 안정적 축산경영이 어려움.
 - 수요, 가격변동에 따른 공급의 비탄력성(시차 발생)으로 불균형 현상 초래
 - 가격주기 : 소(5~7년), 돼지(3~4년)
- 수매, 수입, 방출 등 수급 조절기능의 미약
 - 수매, 수입 등 일시적 대응으로는 수급조절 기능 수행에 한계
 - 가격 하락시에는 미온적, 상승기에는 즉각 대응한다는 비판
 - 최근의 수입창구 다변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
 -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의 제도적 장치 미비
- 전근대적인 육류 유통의 상존
 - 물먹인 쇠고기 등 부정축산물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육류 유통시 규격화(등급화)거래가 안되고 있음.
 - 가축시장, 도축장의 영세·난립 및 시설 낙후
 - 도매시장 기능의 취약

Ⅲ. 개선 대책

1. 양축 경영 지원

가. 가축개량 목표 설정

	주요 형질	'90	2001년	연평균 개량률
한 우	출하체중	450kg	550	1.7%
	육 질	보통	고급육	
돼 지	복당산자수	10두	11	0.8
	일당증체량	890g	1,000	1.0
	등지방두께	1.64cm	1.50	0.7

나. 축산업 구조 개선

○ 부업형 규모를 가족 단위 전업규모로 육성

- 전업규모의 사육두수가 50% 이상 되도록 투자(2001년)

	한 우	젓 소	돼 지	닭
전업 규모	10두 내외	30~40두	500~1,000두	2~3만수

○ 대규모 축산업은 수출 확대 유도

○ 계열화 생산체계의 확립

- 원자재공급, 생산·처리·가공·판매의 체계 구축
- 수출을 전제로한 생산체계로 전환하여 규격품, 고급화 유도
- 계열화 규모(돼지 30천두, 닭 1,500천수)

○ 축사시설 개선

- 자동화 시설(급이급수 시설, 환기, 분뇨수거 등)지원 ('91 : 450억 지원)
- 축사신축시 농지전용, 대체조성비 면제규모 확대(현 1,500㎡ → 3,000㎡)

○ 한우 고급육 생산지원

- 한우 개량단지에서 생산된 수송아지 500kg 이상 비육출하사
사육비 등 일부지원

다. 축산폐수 처리 지원

○ 전업규모, 부업농가 집중 지원

- 지원시설 : 간이 정화조 및 정화시설, 분뇨 운반 장비, 공동
분뇨 처리시설
- '91~'92년간 25천호에 대한 집중 지원('91사업규모 : 520
억)

2.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

〈축산물 수요 전망〉

		1990	1991	1996	2001	연평균증가율(%)		2001 /90(배)
						96/90	2001/90	
1 인 당 수 요 (kg)	육 류	19.9	20.3	24.7	31.9	3.7	4.4	1.6
	쇠 고 기	4.1	4.2	4.9	5.7	3.0	3.0	1.4
	돼지고기	11.8	12.0	14.6	19.6	3.6	4.7	1.7
	닭 고 기	4.0	4.1	5.2	6.6	4.5	4.7	1.7
	계 란	9.2	9.5	11.5	13.2	3.8	3.3	1.4
	우 유	42.8	45.2	53.2	63.1	3.7	3.6	1.5
총 수 요 (천 톤)	육 류	854	880	1,117	1,504	4.6	5.3	1.8
	쇠 고 기	177	182	222	267	3.8	3.8	1.5
	돼지고기	505	520	679	925	5.1	5.7	1.8
	닭 고 기	172	178	236	312	5.4	5.7	1.8
	계 란	393	412	521	623	4.8	4.3	1.6
	우 유	1,831	1,953	2,411	2,975	4.7	4.5	1.6

가. 축산물 가격 안정대제도

- 축산물 가격의 일정 범위내 안정으로 양축농가 소득보장 및 양축경영 합리화 여건조성을 위한 「가격안정대」 제도의 착실한 운영
- 「축산물 가격 안정대」 제도의 개요
 - 대상 축산물 : 소, 돼지(지육)
 - 상·하한 가격고시 : 농림수산부 장관(축산업심의위원회 심의)
 - 상·하한 가격 결정 방법
 - 과거 ()년간 농가 평균판매가격×생산비증가율×(1±가격진폭률/2)
 - ※ ()는 소 7년, 돼지 5년
 - 상·하한가 운영
 - 도매시장 가격이 상·하한가 범위를 벗어날 때 수매 비축, 또는 방출 등 가격안정 조치
 - 가격 하락시 수매비축 방법
 - 비축 등 시설을 갖춘 생산자 단체, 유통단체 등에 수매자금 지원
 - 장기간 하락시 비축 축산물 정부에서 수매
 - ※ 축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법제화 ('91 축산법 개정)

나. 축산관측 기능강화 및 사육조절

- 수요에 알맞는 적정사육 두수 유지를 위한 축산 관측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생산위주의 단기 관측에 머물러 있으며 효과적인 관측을 위한 분석 기법의 개발 부진
- 앞으로 축산관측은 축종별 전문관측으로 대농민 밀착홍보를 전개하고, 생산 이외에 소비관측을 병행하며 중장기 관측으로 농가의 장기적인 경영지침 제공
- 관측 결과 적정 사육규모를 초과 또는 미달할 경우 사육두수를

조절할 수 있는 조치 강구

다. 육류 등급제도 시행

- 육류(소, 돼지 지육)의 품질·수율을 주관적 평가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거래함으로써 농가에게는 높은 등급육(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표가 되고, 구매자(수요자)에게는 육류 용도에 알맞는 선택기준을 제공하게 되어 육류유통의 선진화가 촉진되고 수입 축산물과의 품질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됨.
- 육류 등급제 개요
 - 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 대상 축산물 : 소, 돼지(지육)
 - 등급기준(안)
 - 소 : 육질 3등급×수율 3등급 = 9등급 및 동의
 - 돼지 : 4개 등급(도체중, 지방층두께 감안)
 - 시행시기 : '91하반기
 - ※ 「육류 등급제」 시행근거 마련('91축산법 개정)
 - 준비 상황
 - 등급사 양성(현 55명 채용 교육중)
 - 도매시장 시설장비 보완
 - 돼지 지육 유통의 개선(전도체 → 반도체 유통)
 - 소비자, 유통종사자에 대한 홍보
 - ※ 육류 소비자 가격의 자율화('91.1)조치로 도체 등급제 시행여건 조성

※ 외국의 실시 “예” (소)

국명	등급검사기관	등급구분방법	개시년도
미국	미농무성 농업유통국 축산부 식육등급 검사과	품질등급 : 8개 등급(육우8, 송 아지5 구분) 지육률 : 5 " (육우)	1952
일본	(사) 일본 격부협회	수율등급 : 3개 등급 육질등급 : 5개 " - 지방교잡, 육색, 지방색과 질, 탄력 및 결	1961
영국	식육축산위원회 도체 등급검사 사업부	중량기준 : 5개 구분(성별구분) 외관기준 : 7개 등급 지방부착 : 7개 등급	1972 (EC)
캐나다	농무부 생산 유통국 축산부 등급검사과	등급기준 : 10개 등급 - 등지방두께, 성숙도, 중량, 로-스심 크기 등	1922

3. 유통체계 개선 및 시설확충

가. 부분육 유통체계 확립

- 현행 생축, 지육 중심의 유통으로 도심지 교통, 공해, 육류위생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91년부터 부분육 유통을 위한 시설사업과 도축장에 부분육 가공 기능을 병행토록 함.
- 부분육은 지육을 부위별로 절단하여 포장하고 이를 수송단위로 재포장한 상자육으로 유통되는 것으로 이는 도축과정에서 일괄적으로 가공처리되도록 함.
- 부분육 유통의 시범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권역별(중부, 영남, 호남)로 산지에 대형 부분육가공장을 설치 지원('91년도 2개소 지원)
- 기존 170개소의 도축장 중 영세한 도축장은 통합·정비하여 시설근대화를 촉진하고, 지역별로 정비(권역화)가 완료된 지

역의 도축장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도축시설의 자동화와 부분
육 가공 시설을 지원 육성

나. 생산자 단체의 유통기능 참여 확대

- 생산자 단체의 축산물 유통기능 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매시장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축산물 공판장의 축산물 종합판매장을 매년 확대 설치하여 육류의 공정거래 여건을 조정함으로써 생산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 축산물 공판장은 대도시 소비지를 대상으로 도별로 1개소 이상씩 설치
 - (현재) 도매시장 8개소 → (2001년) 17개소
 - 공판장 개설 지역을 시단위 이외의 지역(산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법(농안법 시행령) 개정
- 축산물 종합판매장은 생산자 단체인 축협이 직접 소비지 시장에 개설함으로써 조합원이 생산한 양질의 축산물을 등급화하여 염가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직판체제임.
 - 종합판매장 개설 계획 : ('91) 40개소 → ('93) 100개소
 - 종합판매장은 수퍼형태로 운영하되 축산물의 판매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다. 축산물 보관 및 비축체계 확립

- 쇠고기 등 축산물 수입증가와 가격하락시 수매비축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비축시설(냉동창고)를 대폭 확충하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 비축시설은 현재 9,400 M_T 에서 36,000 M_T 으로 4배로 늘려 나가며 현재 서울, 부산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시설을 경제권 역별로 분산 시설함과 아울러 기존시설의 이전 및 증축으로 효율성을 제고

빈

면

소값 변동과 축우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실장 : 유철호

I. 소 가격변동과 전망

1. 가격변동

가) 산지소값 추세 (1985~1990)

- 1983~84 『소값파동』 이후 소값 침체기인 1986~1987년간은 대체로 성수기인 연초 가격이 강보합세를 보이거나 대체로 하절기 가격은 약세 (1985년 제외)
- 『소값파동』 이후 소값이 장기침체 결과 소 사육두수의 급격한 감소로 1988년부터 소값은 연중 계속 상승하여 1988년 말에는 두당 180만원 수준에 달함.
- 1989년초에는 연초 약강세를 보였으나 7월까지 약세로 이어졌고 1990년에는 연초부터 강세를 보여 5월에 205만원 수준에서 약세로 반전, 7월에 최저가격 형성 (부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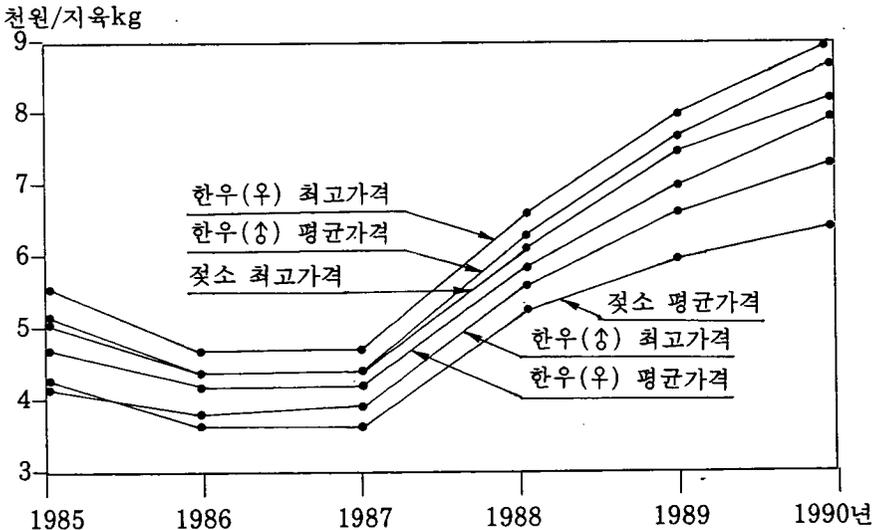
나) 도매단계 (지육경락가격)

- 도매가격은 대체로 연중 산지가격과 같은 추세를 보이며 연초에는 강세를 보임 (85년 제외).
- 1990년에는 연초부터 강세로 이어졌으나 5월 이후 산지 소가격의 약세에 따라 지육경락가격이 7월까지 하락하여 산지시세와 같은 추세를 보임.
- 한우 암·수 및 젃소가격 차이 (그림 1)
 - 가격수준은 한우암소, 한우수소, 젃소의 순
 - 한우암소 최고가격은 젃소의 최고가격에 비해 5~6%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88년 이후 그 폭이 확대되고 있음.
 - 가격차이는 평균가격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남.
 - '85년에는 한우암소 평균가격이 젃소 평균가격에 비해 12.7%

에 와서는 26.4%의 가격수준 차이가 발생함.

- 최저가격의 경우는 앞의 평균가격이나 최고가격에 비해 이러한 현상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1985년 26%의 가격 수준의 차이에서 90년에 와서는 107.9%로 크게 벌어짐.
- 한우 암·수 및 젓소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 또는 평균가격 간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한우 수소의 경우 1985년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에 비해 239.7% 차에서 '90년에는 440.0%의 가격수준차
- 한우 암소의 경우 1985년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에 비해 221.4% 차에서 '90년에는 494.5%의 가격수준차
- 젓소의 경우 1985년 최고가격이 최저가격에 비해 283.0% 차에서 '90년에는 1,035.9%의 가격수준차로 크게 벌어지고 있음(부록2).
- 이는 고급품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그림 1 한우 암·수 및 젓소의 산지 최고가격과 평균가격 비교



자료 : 축협중앙회, 축산물 수급 및 유통동향

다) 소매단계

- 소비자가격은 1985~1990.12월까지 산지 및 도매가격과 연계하여 결정(가격연동제)
 - 1991. 1월부터 연동제 폐지로 자율화
- 수입쇠고기가격(포장육기준)은 국내산쇠고기가격의 50~60% 수준
- 수입쇠고기 유통과 가격
 - 쇠고기 수입은 국내 소사육기반 유지와 양축농가 소득보호를 위하여 수입제한 제도 운영
 - 쇠고기수입이 1988년 하반기에 재개된 이후 수입량은 1988년 14.2천톤, 1989년 50.0천톤, 1990년 85.1천톤으로 증가하였음.
 - 수입쇠고기 수입량 유통과 국내 판매가는 양축가 보호, 물가안정과 소비확대 면에서 조정
 - 수입 재개시에는 고급 정육만이 수입되었고 소비자가격은 별도 지정 않음.
 - 일반육은 전량 포장되어 지정 소비자가격으로 판매
 - 수입육의 한우육 둔갑문제로 1990.3월부터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 쇠고기 유통 이원화
 - 고급육은 전문판매점을 통하여 공급
 - 한우가격 급상승에 따라 한우쇠고기와 대체도가 높은 고급육의 수입량을 상향조정
 - 1990년 7월부터 고급육가격 자율화

2. 최근 소값 상승원인과 전망

가) 최근 소값 상승원인

- 공급측면 : 공급부족
 - 도살용 한우두수 증가 정체

- 산지가격 높게 유지함에 따라 증체로 인한 출하 지연
- 번식의욕 증대에 의한 암소도축 감소
- 원유생산 부족으로 젖소 도태 미룸
- 1991. 1월부터 연동가격제 폐지에 따른 가격상승 기대

○ 수요측면

- 고소득 수요층 형성과 한우육 수요 꾸준히 증대
- 대형 백화점 고소득층 수요충족을 위한 한우 산지 경쟁적 직접 매입 경향
- 산지 및 도매시장에서 한우육 경쟁적 매입

나) 전망

- 1990년의 추세로 보아 현재 상승세인 산지 소값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보합 또는 강보합세를 유지하다 5월 이후 하락세
 - 과거 2년 동안 소가격은 점차적으로 상승세를 보여 왔으며, 큰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임(부록3).

Ⅱ. 축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1. 예상되는 쇠고기 수급 여건의 변화와 문제점

○ 쇠고기 시장개방 압력 증대

- 1990년 상반기 쇠고기 수출국의 협상으로 1990~1992년간 수입쿼터량 합의
 - 1990년 5,800톤
 - 1991년 6,200톤
 - 1992년 6,600톤
 - 그러나 실제 수입량은 쿼터량 초과
- 1993년 쿼터량 협상시 수입쿼터량을 현실화 요구 전망

- 한우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수입증가는 협상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됨.
- 한우쇠고기 자급률 제고
 - GATT/BOP 졸업으로 1997년까지 수입자유화 유보
 - 우루과이라운드협상 타결결과 불투명
 - 한우쇠고기 품질고급화로 수입육과의 시장 분리시간 필요
 - 개방일정 최대한 지연 필요
- 1990년 중반에는 1986년부터 지속되어온 국내 사육두수는 감소 추세가 반전, 약간 증가하였으나(1989~1990, 1,536천두 → 1,622천두) 한우쇠고기 선호도 증가로 국내공급량 부족문제는 당분간 지속 예상
 - 수입쇠고기 공급(일반육 및 고급육)물량 및 포장육 가격조절을 통하여 국내산 쇠고기 가격안정을 기하여 나아갈 것임.
 -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육과열현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과거와 같은 소값파동 재연이 우려됨.
- 수입개방의 대비와 양축가 소득보호를 위하여 한우쇠고기 품질 고급화와 고가화 여건조성 필요

2. 한우쇠고기 품질 고급화 유도 측면에서 생산 및 유통 지원

가) 생산

1) 한우개량단지 적극 지원하여 고급육 생산 기지화

- 전업적 규모로 양축규모 확대로 다두사육과 품질 고급화에 의한 고소득 유인 부여
- 송아지 생산 지원 확대
- 일관 사육체제 유도
 - 영세양축가들은 번식 위주이며 근년 산지소값이 높게 유지되어 왔으나 감소추세(부록4)
 - 비육양축가들은 단기 차익 위주, 번식과 비육 연계 지원

· 전업규모의 축사시설 지원 등

나) 유통

1) 새로운 육류유통체계의 구축 : 부분육 가공공장 중심

- 생축 및 지육유통에서 부분육유통으로의 전환으로 고급육 유통채널 확충
- 중부권(경기 혹은 충남), 영남권(경남), 호남권(전남)에 각각 1개소 설치.
- 1991~1996 기간중에 3개의 부분육 가공공장 설치계획으로, 이들의 시설규모는 연간 33,000톤 규모(현 최대능력 수준)로 함으로써 국내산 가축의 약 12%가 처리 될 수 있도록 함.
- 2000년까지는 추가적으로 2개의 부분육 가공공장의 설립을 검토함.
 - 강원과 경북에 각각 1개소
 - 이 기간중 부분육 유통비중의 증가속도를 감안하여 기존의 3개 부분육 가공공장의 시설을 확충하고 수요충당에 부족되는 시설은 신규건설을 유도함.
- 축협 : 식육판매업소 증설로 고품질의 육류판매 선도

3) 육류등급제 조기 정착

- 필요성
 - 육류소비가 양에서 질을 중시하게 됨.
 - 고급육 생산 유도로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품질에 의한 경쟁력 배양
 - 엄격한 육질검사를 통한 부정육 생산과 유통방지 및 단속 효과
 - 통일된 규격거래로 유통질서 확립
- 도체등급 및 부위별 가격차등제 기준 확립
 - 육량과 육질에 대한 도체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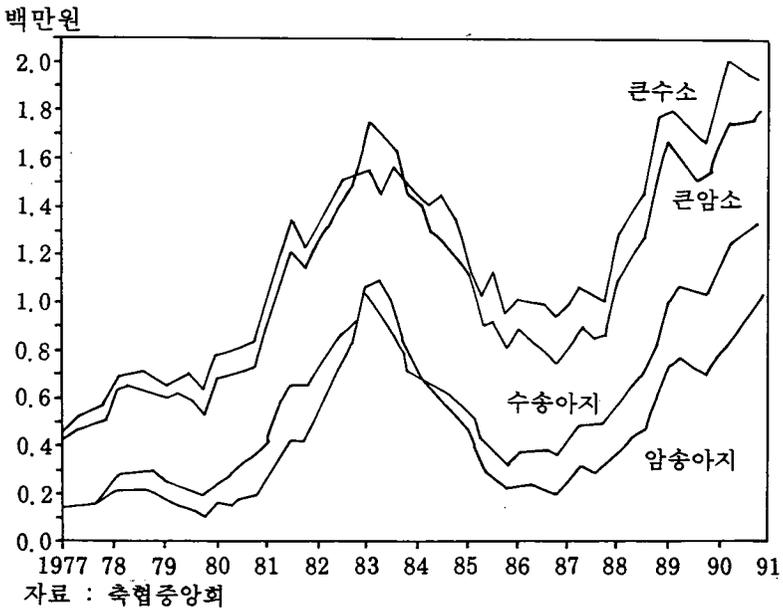
- 부위와 용도에 따른 정육의 차등가격제
 - 등급사의 조기육성
 - 도매시장에 등급육 유통의 조기확대
 - 지역별 생산자단체와 대형유통업체와 연계 추진
- 4) 가격안정대 사업 정착
- 금년중 축산법을 개정하여 1992. 1. 1부터 소값안정대를 설정 운용할 계획
 - 소값안정사업을 오래전부터 소 및 돼지가격의 심한 가격변동을 막고 수급안정을 위하여 실시가 요청되어 음.
 - 특히 1983~84년 소값파동을 계기로 관계당국에서 소가격안정 기준가격이나 상·하한가격수준에 관하여 상당한 논의가 되어음.
 - 가격안정대는 해당 축산물의 생산비와 판매가격 등을 고려 상·하한가격들을 정하고 산지시장가격이 하락하여 하한가격을 밑돌 때는 정부가 개입하여 수매비축하고 상한가격 보다 높을 때는 비축분의 방출이나 수입으로 가격안정을 시켜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농림수산부에서 설정한 1990년 소 및 쇠고기 상·하한가격 설정은 과거 7년간(1983~89) 중 농가판매가격이 생산비 이하였던 1985~87년을 제외하고 농가평균판매가격과 생산비증가율, 가격진폭을 감안 결정

	상 한	하 한
수소 400kg 기준(천원)	1,800	1,400
지육(kg)	7,500	5,939

- 축산진흥기금에서 가격안정대 운용자금 확보
- 그러나 수입쇠고기 대량 방출에도 불구하고 한우 산지소값이 상한선을 크게 상회하고 있고, 하한선이 수송아지 구입가격 수

- 준에도 못미쳐 하한선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는 양측가의 여론
- 일정 간격으로 상한가를 심의·결정·고시하게 되어 실효성 있는 가격안정대 설정에 있어서 가격수준, 가용자금확보 등 상당한 문제 제기 가능성
 - 앞으로 육류등급제 정착이나 수입육 대량방출의 지속시 중하품의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육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에 특히 국내 사육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부록5: 일본의 사정, 참조)
- 5) 정육업체 지도 및 소비자 홍보 강화
- 기존 정육업체
 - 정육점의 등급별 가격표시제 실시
 - 부위 분할정형 방법 이행
 - 소비자
 - 한우와 수입쇠고기, 부위 및 육질 등에 대한 식별능력 제고

부록 1 산지가격 변동(1977~1990)



부록 2 품종별 경락가격 변동(1985~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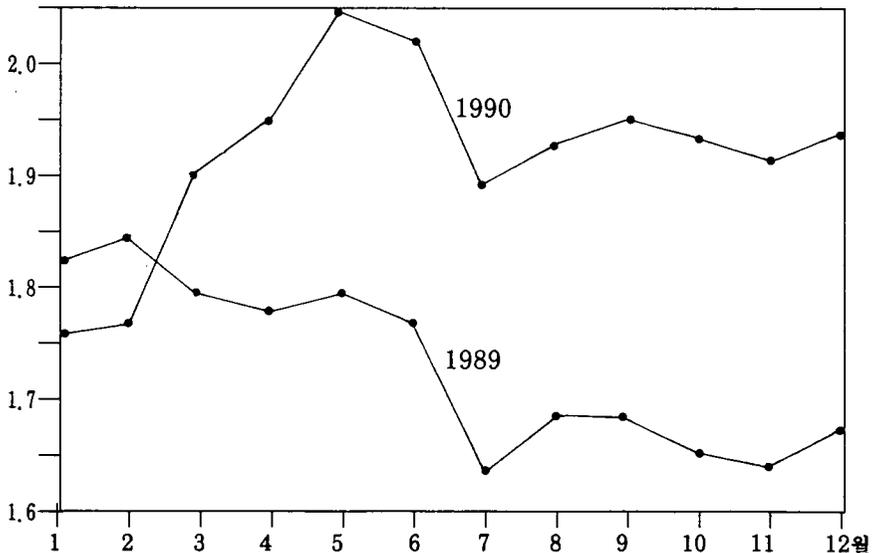
단위 : 원/지육kg

구 분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한우 수소	최고가격	5,054	4,434	4,452	6,350	7,797	8,777
	최저가격	1,488	1,818	1,753	2,109	1,599	1,624
	평균가격	4,104	3,772	3,983	5,702	6,719	7,334
한우 암소	최고가격	5,444	4,678	4,715	6,637	8,162	9,030
	최저가격	1,694	2,158	1,911	2,311	1,590	1,519
	평균가격	4,739	4,264	4,300	6,008	7,220	8,096
젖소	최고가격	5,147	4,440	4,433	6,271	7,625	8,315
	최저가격	1,344	1,557	1,401	1,499	921	732
	평균가격	4,196	3,655	3,672	5,299	5,912	6,404

* 자료 : 축협중앙회, 축산물 가격 및 유통동향

부록 3 산지가격 변동(1989~1990)

백만원/수소 400kg



부록 4

사육규모별 한육우 호수 및 두수 구성비의 변동, 1981~90

년도	계	1~2 두	3~4 두	5~6 두	7~9 두	10~14 두	15~19 두	20~29 두	30~39 두	40~49 두	50~99 두	100두 이상
	... 두(호) %										
1981	858,250 (1,311,725)	92.61 (74.61)	5.28 (11.32)	1.13 (3.93)	0.56 (2.85)	0.19 (1.44)	0.09 (0.92)	0.07 (1.08)	0.03 (0.65)	0.02 (0.47)	0.02 (0.81)	0.01 (1.94)
1982	895,827 (1,525,644)	88.24 (65.80)	8.31 (16.10)	1.96 (6.15)	0.95 (4.33)	0.25 (1.70)	0.11 (1.04)	0.09 (1.27)	0.04 (0.69)	0.02 (0.48)	0.03 (0.96)	0.01 (1.49)
1983	971,152 (1,940,142)	81.16 (55.26)	13.30 (22.05)	3.35 (8.93)	1.50 (5.83)	0.32 (1.84)	0.15 (1.20)	0.12 (1.41)	0.04 (0.74)	0.02 (0.43)	0.03 (0.88)	0.01 (1.42)
1984	1,036,806 (2,317,692)	76.11 (47.09)	16.22 (24.13)	4.49 (10.77)	2.17 (7.59)	0.45 (2.33)	0.22 (1.60)	0.19 (1.96)	0.07 (1.04)	0.04 (0.68)	0.04 (1.27)	0.01 (1.53)
1985	1,047,573 (2,553,449)	74.13 (41.84)	16.36 (22.42)	4.91 (10.76)	2.39 (7.61)	1.31 (6.08)	0.43 (2.94)	0.23 (2.24)	0.10 (1.35)	0.05 (0.96)	0.07 (1.94)	0.02 (1.86)
1986	990,720 (2,370,011)	77.75 (43.72)	13.81 (19.21)	3.85 (8.63)	2.08 (6.75)	1.35 (6.47)	0.55 (3.84)	0.25 (2.46)	0.13 (1.82)	0.08 (1.40)	0.12 (3.15)	0.03 (2.56)
1987	854,269 (1,923,121)	81.55 (47.57)	11.04 (16.33)	3.22 (7.69)	1.86 (6.44)	1.23 (6.21)	0.50 (3.69)	0.25 (2.62)	0.13 (1.93)	0.08 (1.55)	0.11 (3.21)	0.03 (2.75)
1988	701,755 (1,558,952)	83.70 (48.17)	9.21 (13.82)	2.77 (6.74)	1.73 (6.04)	1.29 (6.65)	0.61 (4.66)	0.27 (2.89)	0.16 (2.35)	0.09 (1.67)	0.14 (4.07)	0.03 (2.93)
1989	681,839 (1,536,060)	83.51 (45.29)	9.19 (15.64)	2.87 (8.02)	1.79 (6.74)	1.35 (7.69)	0.59 (4.18)	0.30 (3.22)	0.16 (2.31)	0.09 (1.56)	0.13 (3.08)	0.03 (2.27)
1990	620,266 (1,621,654)	76.47 (39.01)	12.80 (16.39)	4.31 (8.87)	2.63 (7.83)	2.07 (9.01)	0.83 (5.32)	0.41 (3.66)	0.21 (2.65)	0.11 (1.79)	0.13 (3.17)	0.02 (2.29)

* 자료 : 농림수산부, 가축통계조사결과, 1990. 12.

부록5

일본의 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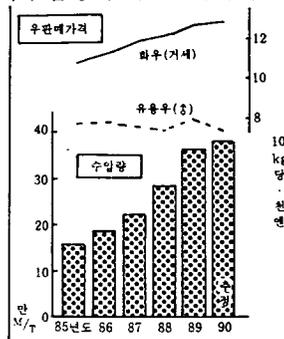
○ 1991. 4. 1 우육수입자유화

- 1988년 6월의 미·일·호·일간 우육 교섭 합의
- 자유화 시기 : 1991. 4.
- 자유화까지 수입량 확대 : 매년 60,000M/T 증가
- 자유화까지 호텔용 수입량:('88) 10,000톤, 이후 3,000M/T
- 매매 동시입찰방식(SBS) : ('88) 30%, ('89) 45%, ('90) 60%
- 자유화 후의 관세 : ('91) 70%, ('92) 60%, ('93) 50%
- 긴급조치 : 발동기준 = 전년 수입량의 120%
발동관세 = ('91) 95%, ('92) 85%, ('93) 75%
- 우육조제품은 1990년 4월 자유화
 - 특정우육조제품의 관세율 : ('90) 70%, ('91) 70%, ('92) 60%, ('93) 50%
 - 우육통조림의 관세율 : ('90) 45%

○ 우육수입자유화 직전의 일본의 사정

- 동경 우육가격은 뉴욕 우육가격의 2.9배(1990.11 조사)
- 수입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우의 가격은 계속 상승, 유용우 가격은 다소 하락.

우육수입량과 우 판매가격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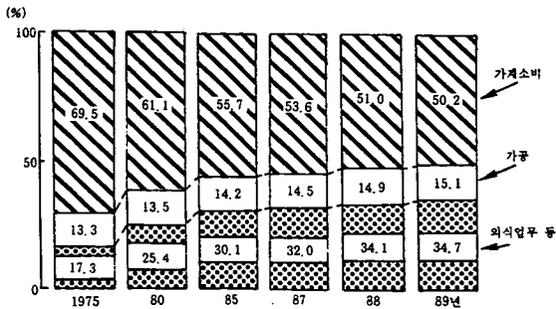


자료 : 일본경제신문 1991 3. 10.

- 수입완화의 경향이 있음. 이는 고급 화우육의 시황이 견고하고, 수입우육의 어깨살, 배살들과 경쟁이 되는 자국산 저급품의 고전이 특징적임.
- 1991. 2월말 유용우 거세지육 B-3, B-2급 1,000엔/kg대에서 형성

- (원인) 1) 예년 2월은 비수요기이지만 대량판매점들의 수입우육 판매촉진 캠페인으로 경합하는 육질의 국내우육 구입이 감소됨.
 → '90년 재고 11~12만톤 정도로, '87~'89년의 2배 가까운 재고량 보유
- 2) 소비자의 수입육에 대한 평가
 - 수입육의 맛, 품질, 선도는 보통으로 보고 있으나 안전성이 문제
- 3) 업무, 외식, 가공용 등의 값싼 수입육 사용 증가
 - 전체 소비량의 50% 점유

우육소비 구성비율 추이



자료 : 일본농업신문, 1991. 3. 6.

○ 우육수입자유화 이후의 전망 및 대책

<전 망>

- 화우가격의 경우 자유화 이후도 안정적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임.
- (이유) 1) 현실적으로 자유화 결정 전보다 결정 이후 화우의 가격수준 상승
 - 2) 화우의 공급부족 : 자국산우의 1/3 정도가 화우이고 이중 A-5 등급을 받은 것은 약 22% 정도이므로 실제 A-5급 화우는 3~4% 정도밖에 안됨. 이에 비해 수요는 크게 확대되고 있음.
 - 평균 지육증량은 이전 400kg 정도에서 ('90) 463kg으로 높아졌고, 수율도 63%대로 3년전보다 2% point 증가
 - 3) 사육농가 및 도축업자들이 선도가 좋은 것을 생산하려고 노력
 - 이전 도축 후 1주일 정도된 것을 이용하여 선도에서 불리하였으나 이제는 이용시기를 크게 당김. 이에 비해 미국산 25일, 호주산 20일 정도 운송기간 소요
- 그러나 최근 화우사육 의욕증가로 화우송아지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 큰 가격상승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
 - 佐賀縣의 경우(1989) 자우가격 60만엔 →(91.1.1) 64만1천엔으로 상승
- 9월 정도까지 대량판매점의 PR 등으로 수입우육의 인기는 높아지겠지만 그 후 국내생산자는 동요하지 않고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
- 우유 등 중저급육의 경우 수입육과 직접 경합으로 다소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증견농가의 이농 진전이 우려되고, 생산의욕 감퇴 예측
→ 재생산소득 확보에 관점을 둔 가격정책 사용의 필요
- 개발수입의 진전 : 자스 Co. 서우(西友), 다이오, 관서슈퍼마켓
등 대량판매점들의 개발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대 책>

- 품질, 선도, 안전성 등의 소비자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이 금후 자
국산우 수익성 확보의 열쇠가 될 것임.
 - 화우의 경우 지육중량과 수율 증대로 안정적 소득확보 노력
 - 우유도 화우와 같은 사료를 급여, 20개월령 이상 비육 및 경
산우 재비육으로 좋은 품질의 고기생산 노력
- 농업전체의 새로운 수요창조의 노력이 필요.

토 의

좌장 :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하면 12시 반부터 중식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토의에 참석하신 분 중에서 우선 꼭 먼저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스스로 자원해서 한번 토의를 해 주시지요. 영남대학교에 계시는 조석진 교수님은 축산분야에 연구도 많이 하시고 논문도 많이 내신 분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석진(영남대 교수): 네, 두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쇠고기문제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님니다만 그야말로 지혜를 짜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름대로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과 오늘 두 분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생각나는 것을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간단하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급을 메우기 위해서 수입을 해 왔는데 왜 가격이 오르느냐 하면, 수입증대 효과가 한계선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공급을 늘려야 될 것은 국내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산기반확대 정책입니다. 과거에도 그런 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68년도에 육류등급제를

비롯해서 77년도에 가격안정대 정책을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단지 거기서 우리가 짊고 넘어갈 것은 과거의 정책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나치게 수급정책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단기적으로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우육경제 전반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어야 합니다. 이걸 끊기 위해서는 결국 구조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정책에 손을 제대로 쓰지 않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림수산부 김경남 과장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앞으로의 우육가격정책 개선방안에 안정대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대정책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소비자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육구조에 대한 제가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 우육구조정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오는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육경제를 좌우하는 정보가 집중되는 두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지육도매시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의 중요한 시장이 송아지시장입니다. 우육경제 거의 모든 정보는 이 두 개의 시장에서 좌지우지 됩니다. 나머지 생체시장이다 소비자시장이다 하는 것은 이 두 시장의 파생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지육도매시장의 경우에 공급자는 비육농가입니다. 비육농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가격하락 혹은 가격상승에 대한 반응이 비교적 민감하고,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할 경우 상당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식농가는 송아지시장의 공급자입니다. 누가 주로 이것을 하느냐, 이것은 지금 농촌 노동력을 보았을 때 적어도 이것은 보조노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령화, 부녀화되고 있는 노동력에 의해서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 특징은 가격이 하락할 적에 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가격하락에도 지속적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가격하락시에 하락폭은 점점 더 커집니다. 상승시에 상승폭이라는

것은 번식농가의 확대규모의 제한조건 - 자본이라든가 기타 노동력이라든가 일정규모 이상 확대가 곤란하다든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 에 따라서 확대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자료를 놓고 보았을 적에 가격의 변동이 심한 것이 송아지시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육시장에 안정대정책을 정부에서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할 것은 이 송아지시장에도 안정대정책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송아지시장은 생산채를 공급하는 시장인데 이것은 마치 도매시장 내지는 생체시장 가격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 같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송아지시장은 송아지시장 나름대로의 수급조건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시장인 도매지육시장 가격안정대 정책을 쓰는 것도 좋으나, 그것만 가지고는 송아지시장의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생산기반안정 확대정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시장에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별도로 쓰지 않는 한 종합적인 가격안정 정책 내지는 생산기반확대정책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소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이 치솟았을 경우에는 번식 농가의 송아지생산의 수지타산이 흑자를 나타낼 때입니다.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하게 되면 정부는 수입을 해 옵니다. 수입을 해 오면 생체가격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번식농가의 송아지가격은 적정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번식기반이 파괴됩니다. 다시 가격이 올라가면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구조정책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써온 것이 가장 큰 맹점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꾸로 송아지가격이 적정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소비시장 가격이 높아야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송아지시장 가격은 송아지시장 가격대로의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또 소비자시장으로

서의 지육시장은 지육시장 나름대로 안정을 위한 정책이 이원화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격정책을 쓰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축산은 생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농산물이 그렇다시피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생산이 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특히 가축인 경우에는 경종작물이나 채소와는 또 달라서 생산에 바이로지칼 싸이클(생리적인 주기)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후라이시그널(?)이 주어졌을 때, 그 가격이 변했을 때 그 가격변화를 받아가지고 시장에 공급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도 의사결정에 따른 시차가 또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시차유통에 의해 지배가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장에 있어서의 단기적인 가격을 잡겠다, 수입을 늘린다고 해서 가격이 잡혀지느냐 하면 순간적으로 잡혀지는 듯 하지만 그것은 결코 또 다른 문제점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로 생축시장과 우육경제시장이라 하는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가격정책에서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국내 우육가격정책의 기본은 통제시장인 수입육의 물량과 가격을 조정해서 한우가격을 잡아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들여오는 모든 수입육이 얼마 만큼 효율적으로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때는 우리가 생체가격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90년 10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 UR타격도 있고 해서 발표했는데, 생체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의 정책은 지육도매시장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만, 저도 지육도매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지지합니다. 동시에 수입육도 마찬가지로 전부 지육도매시장을 경유시켜라 이것입니다. 수입육, 한우육 이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면서 한 쪽은 통제시장으로 놔두고, 한 쪽은 자율시장으로 놓아두는데, 통제라는 것이 시장여건 변화에 따

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정책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수입 물량을 들여와도 그 자체가 그때 그때 시장에서 가격을 잡아주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이 한냉이나 축협 판매망을 통해서 나가고 있으면서 때로는 둔갑도 되고, 유통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매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칠드, 냉장육상태로 고급육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시장에는 대한민국 시장 나름대로 수요의 특성에 의해서 저급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가 하면,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고급육에 대한 생산은 저급육도 마찬가지로 미국 수출국의 생산원가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수출국은 저급육을 공급하게 되어 있고, 국내에서는 고급육을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생산하는 것은 농민입니다. 수출국에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회전기간이 그만큼 길어져야 됩니다. 회전기간이 길어져야 된다는 것은 생산원가는 수출국이 물론 낮지만 생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저급육을 해서 회전율을 높이는 것이 수익성이 높은 것입니다. 따라서 한우의 고급화라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앞으로 주기적으로 한우육생산기반을 파괴할 정도까지 수입육을 들여와서 다시 악순환을 일으키지 말고 이 기회에 과거에 우리가 경험 안했던 정책을 써보자는 것입니다.

구조정책으로서 송아지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정책을 왜 내놓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는 커다란 불만중의 하나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또 한 가지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해야 될 것은, 그럼 앞으로 이제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고급육에 수입을 자꾸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안됩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UR이라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소라는 것이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입니까?

우선 쌀이 농업소득의 52%로 1990년 말에 현재 통계에 잡혀 있습

니다. 그렇다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나라가 처해 있는 기후조건, 입지조건 이것을 떠나서는 우리가 농업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원장님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시면서 참 좋은 외국의 농업 선례를 저희가 앉아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를 보면서 EC의 농업을 우리와 직접 비교를 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EC의 농업환경이라는 것은 우리와 전혀 틀립니다. 그럼 과연 우리 나라 농업이 기술집약적인 혹은 자본집약적인 농업으로 갈 수 있느냐?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농업이라는 것은 물론 평사육도 좋고 화훼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은 UR의 하나의 대책이 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농업의 기본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가치판단이 앞서야 됩니다.

우선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누가 물어도 쌀입니다. 그럼 쌀은 뭐하고 관계가 있느냐, 쌀 플러스 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농업노동력의 54%가 50세 이상의 노동력, 45%가 부녀자 노동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농업이라 하는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말라고 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노동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들의 소득보존을 해 줄 수 있는 작목이 무엇이 있느냐?

쌀은 이미 90년말 현재 116만톤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농정의 가장 큰 고민은 앞으로 쌀조정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공개적으로 이야기 못하는 이유는 농업소득을 향상시키는 것은 한계에 와 있고, 그 외에 농외소득을 해서 도농간에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당장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라는 것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단기적인 가격정책만 가지고 소비자물가를 잡겠다. 이것을 잡겠다는 이런 정책으로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것이 과거의 우육정책이 아니었습니까?

특히 4월 1일부터 일본이 우육수입을 자유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

라서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고급육 비율을 높여서 수입을 계속 늘린다고 한다면 결국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또 다시 국내 생산기반을 파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악순환이 재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저께 제가 대만에서 온 전문가 농업위원회 물가과장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축산에서 UR대책의 NTC 속에 소를 포함시키고 중소가축을 수출전략 품목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작년에 제가 대만에 가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대만이 일본의 돼지고기 수입시장에 약 37%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럼 그 같은 37%라는 대만의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렀느냐?

최근에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커다랗게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라는 문제를 너무 가볍게 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대만정부는 돼지고기 수출을 한다는데 목적을 두었지, 그 수출을 위해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뒤늦게 올해부터 6개년 계획을 세워서 대만은 돼지고기 수출을 자제하겠다고 정책전환을 했습니다.

사료곡물을 거의 100% 수입을 해다가 축산물 생산하는 나라가 과연 중소가축 혹은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느냐, 물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본이라는 시장이 옆에 있습니다. 축산중에서 공해에 가장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는데, 돼지가 48%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소라는 것은 공해라는 측면에서 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본에서 한우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재고하면서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 한우의 위치를 그야말로 한우야말로 축산중에서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축산물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한우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농업에 기본적인 작목과의 결합관계, 여기부터 다시 출발해서 정책의 가치판단의 기준이 다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장 :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교수께서는 축산분야를 오래도록 깊이 연구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지육시장과 송아지시장 두 개를 별도로 안정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송아지시장의 안정대책을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계십니까?

조석진(영남대 교수) : 좋은 아이디어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 아마 여러분이 이것을 참고로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본이 과거에 가격안정대책을 실시해 오고, 88년에 미국하고의 쇠고기협상이 타결되면서 어떤 정책을 내 놓았느냐 하면 바로 송아지에 대한 부족지불제도를 실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수입육이 4월 1일부터 일본에 쏟아져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노페우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협상이 타결되자마자 그 다음에는 젓소 수송아지가격의 저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와서 수입이 압박하자 심지어는 화우고기의 가장 낮은 등급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적에 국내에 생산기반안정이라는 문제가 이제 상당히 위협을 받게 됩니다. 동시에 일본도 마찬가지로 화우를 키우는 번식농가라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보다도 더 기간노동력이 아닌 보조노동력에 의해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정책적으로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노동력의 고용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로 또 다시 대두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농업정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책까지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습니다. UR에서 농업구조가 문제로 떠오른다고 그러는데 농업정책에 대한 보조를 분산시키자. 다시 말씀드려서 농림수산부 예산만 가지고 하지 말고, 보건사회부나 환경처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에도 예산을 분할해서 예산을 횡적으로 나누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렇게 되면 UR에서도 지나치게 농업에

대한 보조라는 비난을 좀 피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아이디어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송아지시장에 대한 일본정부의 부족지불제도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희생을 강요하면서도 일본으로서도 소를 지키는 것이 그 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정책적인 대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는 반드시 부족지불정책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또 높은 가격이 아니더라도 송아지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그 자체는 생산기반을 안정시킨다는 문제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 정책에 어떤 형태든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좌장 : 지금 조교수님께서도 쌀하고 소가 장기적으로 한국농업에 있어서 주축이고,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중소가축은 지금 특히 수출을 한다든지 중소가축을 집중적으로 양성을 할 때에는 공해문제가 많이 생겨서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어렵지 않겠는가, 또한 쌀을 중요시 여겨야 하는 이유로는 그 자본·기술집약 농업에 한계가 있다, 유럽 농업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평상시 주장해 온 내용하고도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저도 여기 토론에 끼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세계 농업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을 - 제가 볼 때는 - 거의 180도로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라 쌀산업이 지금 사양화합니다. 사양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옛날 쌀밥 같으면 최고의 고급식품인데, 지금은 소득이 올라서 소비자들이 더 고급식품으로 올라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쌀이 사양화되어 갑니다. 이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농업의 변화, 우리 나라의 쌀 뿐만 아니라 밀, 콩, 옥수수 곡물을 생산하는 나라의 농업이 다 그렇습니다. 미국의 농업이 곡물 중심의 농업이므로 미국의 농업이 사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UR에서 저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1980년대 중반에 소값파동이 과잉생산에 의해서 일어났듯이 미국이 80년대 중반 세계 수요가 적어져 수출이 잘 안되고 국내 소비가 많이 안돼서 4농가 중에서 한 농가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우루과이라운드가 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농업의 근본적인 전환을 보았을 때에 과연 소비가 줄어드는 분야를 소득의 중심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느냐? 또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좀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농업이 우리 나라 농업하고 여건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채소, 과일, 고추라는 것은 유럽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나라에서 더 좋은 것이 생산됩니다. 더 좋은 품질이 화란이나 이스라엘, 덴마크보다도 독일보다도 더 좋은 것이 나와서 오히려 그쪽에다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땅이 상대적으로 적고 기술의 여력이 낮고 하는 측면에서 유럽하고 다를 바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유럽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다고 일언지하에 생각을 안해 버리는데 이 문제는 - 우리 조 교수께서 축산을 많이 연구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우리가 분명히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갈릴레이 같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구는 판자처럼 평평하다고 생각할 때에 지구가 둥글다고 이야기 하게 되면 얼른 발상의 전환이 잘 안되는데, 그런 정도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세계 농업의 실상을 바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증소가축이 수출전략이 무리지 않느냐? 공해문제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두산에서 터진 그 낙동강 수질오염문제를 여러분이 잘 보셨습니까만 이것은 두산의 낙동강 뿐이 아닙니다. 서울 수도물은 여러분 온전한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천지에 지금 공해성 제조업에 의한 우리 환경의 파괴와 수질오염은 갈때까지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가축을 산에다가 기르고 들에다가 기르고 농업을 중시하는 것 보다도 제조업이 공해를 덜 생산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가축내에서 돼지가 더 공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돼지산업은 안하는게 좋다 하는 이런 논리가 아니라 공업 - 지금의 공해제조업을 더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나라 국토관리와 환경 개선과 수질오염을 시키는데 이것이 더 좋으나, 아니면 스위스 처럼 가축을 그래도 듬성듬성 많이 기르는 것이 오히려 공해에 더 좋으나, 환경에 더 좋으나,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양돈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번에 돌아본 결과에 의하면 양돈분뇨를 비료화 한다든지, 연료화 한다든지 하는 기술이 다 개발돼 있습니다. 우리가 그 쪽에 안들어가서 그렇지 이것을 꼭 내버려야 되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는 싸이클링에 둔다고 하는 것은 옛날 선인들로부터서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 건 한 건을 보고 공해문제 때문에 중소가축이 수출산업이나 국내수요를 위해서 발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조업에 비교를 하게 되면 - 제조업의 공해유출 내지 발생하고 비교가 되면 농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스위스나 독일을 돌아보면서 농업을 많이 육성해야 국토관리와 환경보존을 유지할 수 있고, 수질오염이 적게 될 수 있다고 저는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축산분야도 우리가 과감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가 중소가축 같은 것을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쉬움이 있고 소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소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입쇠고기를 좀 별도로 완전하게 국내산 쇠고기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그때가 81년 9월인데 수입쇠고기를 전부 얇게 썰어서 포장을 시켜 버렸어요. 그때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유통개선이라고 하였지만 유통개선에 주목적이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그때 목적은 수입육과 국내육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한우육은 큰 데서 잘라가지고 가져오고, 수입육은 잘라 놓은 것은 수입육이다 라고 구분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한냉을 통해서 그것은 엄격하게 얇게 썰어가지고 포장을 해서 내보내 수입육과 분리시키자는 목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수입육을 완전히 격리시켜 버리고 내버려 두자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비싸게 주고 먹겠다고 하는 한 내버려두고, 물가에 잡지말고 그러면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어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그렇지 않고, 지금 수입쇠고기가 그냥 들어와서 국내 고기하고 100% 대체가 된다는 입장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조교수님이 말씀하신 과연 초식가축 특히 한우의 장기적인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국내외 값의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크게 나고 있는데, 조교수님께서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후에 토론을 위해서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쌀과 소를 오히려 축소시켜가면서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길 것이냐? 이 문제는 한국농업의 앞으로 발전방향의 기본적인 아주 근본적인 것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오 후 토 의

좌장 : 건국대학교에 계시는 건국대 축산대학에서 이 분야에 많은 연구도 하시고, 우리 연구원의 유통분야에도 참여해서 공동연구도 하신 정찬길 교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정찬길(건국대 축산대 교수) : 저희가 이런 공청회를 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이 그 모든 대책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문제는 1988년 6월에 지상에 제가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정부에서 1984년 이후부터 정부가 암소도축 연령제한을 풀어버리고 수소제한을 전부 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임암소를 집중적으로 도축을 해 가는 과정에서 사육기반이 급속도로 붕괴해가는 그러한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1988년대에 오게 되면 정부에게 대량 쇠고기수입의 구실을 줄 뿐만 아니라 쇠고기가격의 파동이 다시 올 것이다. 1988년 6월 그 시점에서 지금 문제를 다루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 보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지상에 한번 공개적으로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해 가면서 오늘 공청회의 초점이 소값이 지나치게 폭등을 하니까 소값폭등에 따른 영향을 받는 것이 자연히 폭락현상이 올 것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의 소값파동 추세가 1985년부터 시작해서 87년에 있었던 그 폭등 추세와는 양상이 다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농림수산부나 EPB에서 과연 우리가 현재 자급도를 100%, 혹은 70%, 80%, 50% 등 어느 수준에 두고, 얼마만큼

소가 필요하고 얼마만큼 모자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소값이 올라가는데 아까 유철호 박사님께서서는 5월쯤 되면 소값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분해법하고 박스젠킨스 방법을 이용해서 소값의 단기에측을 1991년 것을 했습니다. 이에 암소가격하고 그 다음에 수소가격 전부 다 해 보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추세가 금년 말까지는 충분히 지속이 될 것이며 물론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폭락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90만원부터 200만원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혹은 185만원 200만원 사이를 오르내리면서 금년 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추세라고 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에 문제는 생산자의 반응입니다. 현재 높이 상승되어 있는 소값, 송아지값이란 생산자의 반응인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초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높이 치솟은 소값이 계속 혹은 다음에 이 추세가 꺾여서 폭락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육성이나 혹은 비육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간에 충분히 가지고 있는 소로부터 충분히 자본축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소 밀진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축적을 했던 것에 대한 손실이 생기고 충분히 보전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되겠지만 커다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여기에 반응을 해서 신규로 입식을 시작하거나 사육을 사육하는 분들은 큰 타격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부입장에서 신규로 입식 송아지 150만원 160만원짜리 입식을 해 가지고 이것이 다시 육성이 되고 혹은 또 번식을 해서 큰 소가 되고 또 새끼를 낳고 비육을 해서 이것이 시장에 나가려면 최소한도 40개월 내지 52개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입식한 사람들은 반드시 40개월 내지 52개월 후 혹은 비육입식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소를 집어넣게 되면 아마 20개월 이후에는

소값이 떨어진다고 할 때는 타격을 받게되므로 정부가 해야 할 홍보는 최소한도 신규로 소사육을 시작할 분들에게는 큰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어 간다. 또 현재 기르고 계신 분들에게도 앞으로 이런 추세가 될테니 증식을 자제해 달라든지, 이런 문제를 아마 입식을 하는 분들에게 입식을 하는 사육업자들에게 상세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생산자들이 당할 그와 같은 가격폭락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볼 때 앞으로 쇠고기 수요추정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자세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농무성이라든지 미국 각 연구기관 여러 군데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동시에 공청회를 해서 합리적인 결과를 채택하는데, 우리는 한 군데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차가 크게 생겼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쇠고기에 대한 수요추정의 오차 때문에 대량 수입을 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쿼터까지 포기하고 무방비 상태로 쇠고기를 수입할 정도로 수급추정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해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쇠고기수요에 대한 계층별 수요파악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해서 대처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쇠고기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도 사실은 그 중산층, 저소득층의 임금상승에 따라 이 계층으로부터 쇠고기수요가 폭발했기 때문에 급격히 쇠고기를 많이 먹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데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는 것이 문제로 제기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쇠고기의 자급도를 어디에다 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 과장께서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96년에 22만톤, 그 다음에 2000년에 쇠고기가 26만7천톤 이렇게 수요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100%를 자급할 것이냐 혹은 60%를 자급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분명히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런 문제가 심각한가 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서 추정 한 것이 결과적으로 필요 사육두수가 나오게 되고, 필요 사육두수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식기반이 필요하게 되며, 우리 증식기반을 구축해야 될 것이고 모든 정책의 방향 제시가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추정에 의할 것 같으면 1996년은 235천톤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2001년에 가면 32만톤 정도가 나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수요추정을 했습니다. 1인당 소비량도 5.1kg부터 6.3kg 1996년에 2000년대에 가서 6.27kg부터 8.74kg 제가 조금 과잉 추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하고 추정량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시간에 최소한도 30만톤 정도를 자급하겠다는 할 것 같으면 소가 300만두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60% 자급도다, 70% 자급도다. 이것을 확정 시켜서 거기에 따른 소요두수를 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어떤 방법으로 국내에 사육기반을 구축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송아지 증식문제도 같이 따라 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유통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이 제가 그 동안에 정부가 쇠고기 수입해서 방출한, 월별로 방출한 방출물량과 kg당 소매가격, 산지가격, 도매가격을 1977년 1월부터 90년 12월까지 그림을 그려 보았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과거에는 아마 이 정도 방출했으면 쇠고기값이 급허질 때가 됐습니다. 터닝포인트라고 전환점이 이루어질 때가 충분히 됐는데, 전환점이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쇠고기를 굉장히 많이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왜 소값, 쇠고기값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문제는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하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소값이 안 떨어진다는 것은 소 자체가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60만

두 가지고는 우리가 현재 먹고 싶은 소를 충분히 잡아 먹을 수가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문제는 유통상의 문제인데 가격이 오르면 올라갈수록 소매가격과 도매가격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가격분산이 가격이 올라가면 산지에서 생산자가 더 이익을 많이 봐야 할 텐데 오히려 역제를 받고, 소매하고 도매 사이가 훨씬 더 벌어집니다. 이것을 여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싸게 못먹고, 생산자는 비싸게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유통정책을 수립해야 되겠는데, 유통정책 자체가 생산자와 소비자 위주라기 보다는 수입쇠고기와 국내산 쇠고기의 이원화에 의한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수입쇠고기의 수입방법에 따라서 국내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우리 대사관에 계신 분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한국사람은 쇠고기를 먹을 줄 모른답니다. 고급육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우리가 고급육을 먹을 줄 아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소비패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질육이 들어와도 고급육으로 팔릴 수도 있고, 고급육이 들어와도 저질육으로 팔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비측면에서 이것부터 개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급육이 잘 팔리고, 고급육에서 형성된 가격이 생산자에게 돌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 시점에서 전혀 소비패턴이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고 나갈 조짐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소위 가격마진, 물량마진, 품질마진 등과 같은 것들이 문제로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것이다.

또 수입하는 방법도 우려가 고급육을 수입하든지 저질육을 수입하든지 수입하는 그 시점과 미국의 쇠고기 가격의 변동추세를 보면 상당히

계절적 시기적으로 월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과연 쇠고기를 제대로 살줄 알아가지고 썬 시점에서 쇠고기를 사오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의 노임이 비싸기 때문에 쇠고기를 사올 때도 지옥으로, 목 꿇고 두 도막 내가지고 발 꿇고 사오는 것보다는 부분육으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저 친구들이 우리한테 감히 대량수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노임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전부 보진을 하게 되며는 수출가격이 비싸집니다. 수입방법 문제를 대폭적으로 정부가 개선해서 국내가격 안정에 많은 효과를 갖게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가격추정을 해가지고 소비자에게 홍보, 생산자에게 홍보하는 문제에서 집중적으로는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방법, 기간 그리고 모델선정이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에서 무슨 방법으로 했더니 5월달에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 생산자가 생산조절 해가지고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분명히 가격 예측치가 나가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도지표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적이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자체가 홍보가 돼야 하는데, 우리 가격관측에 전부 따라와 달라는 그러한 인상이 강합니다.

좌장 : 우리가 토론하실 분을 좋은 분을 모셨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이 쏟아지고 나서 생산농민이나 또 소비자대표나 단체에 계신 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진 다음에 판단적인 토의를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중축개량협회 사무국장장으로 계시는 박신희 박사님도 평생 축산문제, 특히 젓소에서 박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점차적으로 다른 분들의 판단적인 토론, 선호적인 토론, 그런 쪽으로 진행하면 어떨까 합니다.

박신호(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 : 오늘 토론회가 소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쇠고기값이 올라간다는 소비자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여러 학자님들이 모여 앉아 송아지값 올라가니까 안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토론을 벌이는 건지 그런 점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한우가 현재 고급육으로 팔리고 있는데, 현 위치에서 그냥 안주해서 한우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문제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한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존을 하고, 유지를 하고, 개량을 해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우를 모든 사람들이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가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한우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전적인 인자를 가지고 있느냐, 과연 우리가 거기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 또 일본에 한우를 수출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분명히 한우는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적인 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량할 수 있는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을 하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오늘날과 같은 정부의 시책이나 농민의 인식이나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우가 유전적으로 개량이 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축산여건하에서 한우의 종모우를 골라내서 그것의 후대검증을 하고, 그 후대검증한 종모우에서 정액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 앉아계신 축정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크나 큰 공로이며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의 업적이라고 찬양을 아끼지 않습니다.

문제는 현재 우리가 한우를 개량하는데 한우개량에 참가한 농가가 한우개량단지라고 하는 명목으로 약 100개소입니다. 1개소에 약 400

두의 암소가 선정이 되어서 그 암소의 체형에 따라서 한우개량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종모우의 정액을 지정을 하는 일종의 계획교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 한우의 사육두수가 160만두, 그 중에 약 절반 정도를 암소라고 생각을 하면 80만두, 그 중에서 약 4만두 정도만이 한우개량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인자를 선발 해서 그것을 후대검증하고, 계획교배를 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발강도입니다. 한우의 개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한우개량에 참여하는 암소의 두수를 늘려가면 선발강도가 높아지고 개량이 추진될 수가 있습니다. 한우는 고급육을 생산하는 가축으로 개량을 해야만 수입개방에 대항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아침에 조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본시장에 왜 돼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고급육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시장도 옆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우를 잘 개량을 하고 고급육을 만들면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송아지값이 너무 비싸지기 때문에 또 파동이 올 것이 아니겠느냐는 점입니다. 저의 짧은 지식으로 보아서는 저희들이 겪었던 소파동과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소파동과는 환경이 다릅니다. 그 때에는 우리가 여러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은 쇠고기 값이 올라가면 정부가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우의 개량시책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한우를 생산하고 있는 번식농가 - 이 농가들은 한 두 마리를 기르고 있는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게 송아지 값이 너무 올라간다고 하는 불안감을 주는 그러한 공청회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좌장 : 롯데백화점에서 정육관계를 담당하는 전 영석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고급한우육이 고급육으로서 물론 기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아주 우수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다고 박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습

니다. 전영석 선생님께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대해 보면서 한우육과 수입육에 그런 여러가지 질의 차이라든가 소비자가 구분할 수 있느냐, 과연 참으로 고급육을 아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전영석(롯데백화점 정육낙농구매과장): 저희가 매장에서 판매도 직접 하는 가운데 느끼는 점입니다만, 등급화가 과연 얼마나 실제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느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우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등급화가 되면 육종에 의해서 그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추진되는 방향이 상등육에 대해서 상강도에 따라서 구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에 대한 그런 특등부위나 상등부위 즉 다시 말해서 안심이나 등심 같은 부위는 소비자들이 선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마블링상태에서 어느 정도 선별을 해가지고 사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고급육에 대한 중등부위나 하등부위는 거의 질이 같습니다. 또한 정 교수님 말씀대로 주물력을 해서 먹기 때문에 육질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 놓았을 경우에도 별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등육이라고 해서 구입을 했을 경우에 가격을 비싸게 주고 사는데, 특등육이나 상등부위로 해서 파는 부분들의 가격 차이하고, 중등육에 대한 가격 차이 때문에 즉, 이등육 중등육으로 파는 가격이나, 일등육 중등육으로 파는 가격 다 똑같이 소비자들에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가격부담을 소비자들에게 특등육이나 상등부위를 팔면서 부담지워 줍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특등육이나 상등부위를 사는 분들이 그 고급육에 대한 중등육, 보통육에 대해서 그 결손이 나는 부분을 그쪽에다 덮어 씌운 것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중등육이라든지 보통육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또 한우라는 한우육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일등육, 이등육, 삼등육으로 분리가

되면 육질을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고 고객들도 선호를 하는데 반해서 육질은 낮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한우육 전체가 선호하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저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일등급이나 이등급이나 등급보다는 한우육이나 아니냐에 따른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판매를 하다 보면 이게 한우육입니까 하고 물어보는 손님이 있지 이것이 국내산이나 하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판매하는데 애로점이, 우리가 순수한 한우를 가지고 판매를 했을 경우에는 한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육종 중에서는 비육우도 있고 일부 다른 고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육에 대한 등급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개선점이 있어서 한우육을 등급화해서 반영이 돼야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부분하고 지금 정책을 위임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사이에 갭(차이)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육의 둔갑 판매가 많은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 수입육 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유통되고 있는 육자체가 냉장상태로 유통이 안되고 거의 냉동상태로 유통이 됩니다. 대부분이 육자체가 냉동으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한우고기도 냉동을 해서 팔고, 수입고기도 냉동으로 들여오기 때문에 냉동해서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고기 중에서, 국내산 고기 중에서 물을 먹였는지 뭘했는지 냉동상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구별하는 방법으로 수입육은 전부 다 냉동으로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고기는 전부 다 냉장판매를 한다 이겁니다. 냉장판매를 하면 물먹은 고기도 나올 수도 없고 금방 구별이 되니까 수입육자체가 둔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체제적인 수입육자체를 냉동, 국내육자체를 냉장시스템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러한 둔갑판매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그 둔갑해서 판매하는 이유가 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입육과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육과의 가격이 절반밖에 안됩니다.

다. 절반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때문에 정육업자라든지 음식점을 하는 분들이 싼 고기를 사다가 마진을 부당하게 해야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현혹이 돼서 유혹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수입육 - 과거에 83년도 82년도 그때도 수입육자체가 많이 판매된 이유가 국내육보다 반 가격이기 때문에 많이 팔렸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판매를 할 때 보면 가격이 워낙 반 가격이 되기 때문에 쇠고기에 대한 그 수요는 늘렸지만 돼지고기나 닭고기에 대한 수요를 일부 줄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 닭고기가 값이 싸서 먹었는데, 돼지고기, 닭고기 가격이나 쇠고기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대체된 효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입육 가격자체를 너무 싸게 가지고 '나아갈 경우에는 가격자체에서 둔갑판매도 나올 뿐만 아니라 일부 타육에 대한 대체효과도 일어나고, 오히려 쇠고기에 대한 선호만 높여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수입육 가격자체가 낮은 걸로 인해서 쇠고기에 대한 선호도만 높여 놓고 가격이 나중에 올랐을 경우에는 전혀 대책이 없지 않느냐 하는 점도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수입육이 지금 현재의 가격을 현실적으로 좀 상승을 시켜서 둔갑판매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개선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는 아무래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소를 사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축산물내에 항생물질이라든가 성장촉진제가 들어갔을 경우 검출이 되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시된 일은 전혀 없는 걸로 압니다. 문제점은 저희가 소를 농가에서 사다가 파는데, 농가에서 생산하는 분들의 대부분이 소값에 의해서 출하시기를 결정하지, 계획적인 출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생물질이라든지 성장촉진제를 투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실험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생산자분들도 소비자들한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을 갖고 내가 출하하는 소에 대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을 규제를 하고, 이런 시기가 안돼서 그 영향이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출하를 자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아울러 마련을 해 주셔야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에도 단순히 판매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이 전부다 책임을 져야만 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장 : 그럼 직접 생산을 하시는 분하고 소비자 대표하고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나머지 분들 토의를 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 방청석에도 토론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 아산 영림축산을 하시는 김재창선생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재창(충남아산, 영림축산) : 여기 오기 이전에 몇몇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타물가에 비해서 결코 소시세만이 오른 것이 아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이유는 84년도 생체소가 kg당 4,200원까지 갔었습니다. 한우가 지금 5,500원 내지 5,600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장 7년 동안에 얼마가 상승됐나 하면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또 소비자단체나 이런데서 불적에는 최저가격 2,800원일 때를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때 비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생산자들 할 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4,200원대 비해서 40%가 올랐다고 하면 소값이 결코 많이 오른 걸로 생각을 앓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 볼 때에 우리 축산농가는 85년과 91년도 물가에 비해서 다른 건 다 몇십%, 100%, 200% 다 올랐는데, 소값 40% 오른 것을 가지고 이 공청회를 연 것입니다. 수입쇠고기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소값을 안정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소값안정 가격이 얼마나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말하기를 140만원

(90년도)입니다. 이게 140만원 내지 180만원 상하한선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한번 따져 봤을 적에 이것 가지고 송아지생산, 원우생산 해가지고 생산농가가 살 수 있겠는가 한번 따져 봅시다. 김 과장님께서 한 10두 가지고 원우 생산하는 것이 적정선이 아니냐.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10두가 전업으로 봤을 적에 이것 생산해 가지고 수지타산 맞느냐 하면 절대 맞지 않습니다.

정부는 올해 원래 수입계획은 6만2천톤인데, 또 정부에서 8만4천톤으로 늘리더니 지금은 10만톤, 10만톤이 부족하니까 무제한 수입한다고 하니 우리가 할 말이 뭐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 축산 농민이 도저히 정부를 믿고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 경제기획원장관으로 가신 최각규 장관님은 농림수산부를 거쳐 가셨기 때문에 조금은 희망을 가졌는데, 수입품목을 전에는 주무장관 허가품목이었는데, 이젠 그것을 배제한다 이겁니다. 물론 한시적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농림수산부 김 과장님이 앉아 있어도 잘 안됩니다. 경제기획원 장관 혼자 다 하시지요. 혼자 다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 생산농민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박 박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우 유전인자가 좋고, 절대적으로 우리 원우생산하는 사람 보호해야 된다니 아주 큰 힘입니다. 한우 하나만 그래도 주체성을 가지고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지켜주는 축종중에 하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건데, 이거 하나 고급육으로 해 가지고 또 없는 사람들 좀 낮게 살아보자고 하는데 가격 조금 올랐다고 해서 지금 야단 버거지 입니다. 우리 축산농민이 불적에는 야단 버거지 치고 있다고 그러합니다. 지금 한우고기값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점심먹은 고기값, 식사값이 떨어집니까? 안떨어집니다.

84년서부터 85년 86년까지 정말 온 축산인이 다 망해서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몇년 동안 회생을 했으면 우리에게 조금 보답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소값이 폭 떨어져 망한다고 해도 지금 자본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 하시는데, 물론 대기업들은 그럴 수가 있겠지만 우리나라 축산하는 사람들이 보통 10마리 아니면 20마리, 30마리 이게 전업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소값이 2,800원, 3,000원대로 떨어지게 되면 다 거덜나는 거지요. 사실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다른 물가에 비해서 절대 소값이 엄청나게 급등하는 정도로 오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또 농림수산부나 또 경제기획원이나 축협 이런데서 농림축산업을 하는 사람들 보호하는데 게을리하면 축산업은 영원히 살아 남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유통과정에서는 엄청난 부조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산 생산자를 죽이고 소비자를 비싸게 먹이고 거기다 그런가 하면 강제급수를 해서 소비자는 정말 이중 삼중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부에서 조장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우리 생산자가 소를 잡을 수 있는 데는 9개 도살장 경제부르는 데서만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61개 도살장은 정육업자가 잡을 수 있는데, 정육업자가 잡는 데는 계류를 안하고 당일로 잡는 다 이겁니다. 그럼 형평을 잃는 것이 아닙니까? 왜 축산인들은 법정시간 7시간을 꼭 계류를 지켜야 되고 또 정육업자는 그냥 잡아야 되느냐? 그럼 정부 축산국이 뭐하는 것이냐? 농림수산부 축산국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우리도 같이 도둑질을 하고 강제 급수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외면할 적에는 어떠한 것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소비자가 좋은 고기를 먹었을 적에 한우고기도 찾는 다 이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유를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이 소값 쇠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소값이 3백만원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건데 쇠고기값 7,500원, 8,000원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안하시거든요, 소값이 비싸다고 그게 액면이 3백만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절대 결코 비싼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말하기를 일관체제를 말하는데, 내가 생산을 그냥 해가지

고 내가 비육을 하게 되면 180만원, 150만원대에도 수지타산이 맞는다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원우생산하는 사람 별도로 있고, 비육하는 사람 별도로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소사업이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제도적으로 일관체계 사육하라 강요하는데 그것이 강요해 가지고 될 것이냐 이겁니다. 절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 박사님이 외국에 다녀와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좁은 땅에서 어디 가서 많은 초지를 가지고 좋은 사료를 먹이겠습니까? 순 농후사료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전업규모를 갖은 사람들은 생산을 못한다는 것은, 전에 삼양축산에서 한우하다가 결국은 때려 치운 지금 유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넓은 초지에서 3천마리 가지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해 가지고 그만 두고서 지금 젓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

그리고 엇그저께 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이 앞서가는 농어촌에 23일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우고기가 2~3배 비싸다고 하는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축산인들, 우리 생산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타물가에 비해서 결코 엄청나게 비싸지 않고 폭등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장 : 공청회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다양한 소리가 나와서 고루고루 이야기를 들어 보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한국소비자연맹에 부회장으로 계시는 이경여 선생님 말씀해주십시오.

이경여(소비자연맹 부회장) : 저는 고발센터에서 고발을 받는다는 것이 불만스러운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듣고 이 쇠고기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그 문제점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각자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쪽이지만, 과장님의 주제발표를 들으면 앞

으로 소키우는 사람도 그렇고 소비자도 하나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박사님, 교수님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해 주셔서 공부가 많이 되었고, 지금 생산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확실히 문제는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소비자니까 보통 소비자들이 고기를 사먹으면서 불편하다든지 어떤 것들이 문제들인가 이야기하면 — 고발센터에 들어오는 건수라든지 양상을 봐도 — 옛날에는 수입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해서 판다하는 것들이 주 품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한번 사기세일을 했었잖아요? 한우로 둔갑해서 팔았던 것이 적발된 이후 이제는 한우를 물먹여서 판다하는 것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뼈를 고아 먹었는데 그 뼈에서 국물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이 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생산자가 말씀하신 것 같이 백화점에서는 기술적인 말로 이야기했는데 소비자를 우롱하는 말이거든요. 한우라고 하면 다 한우인 것이지 국내 소가 어디 있고 한우가 어디 있어요? 그것을 소비자들 다 구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다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는 부위별 판매에 아까 과장님이 85%를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건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 몰라도 85% 정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쪽으로 잘못 아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능에 살고 있는데 한우를 살려고 하면 문화촌시장까지 가서 삽니다. 우리 동네는 물먹여서 파는 고기이어서 고기를 사가지고 오면 물이 줄줄 흘러서 먹을 수가 없어요. 한 세군덴가 있는데 전부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것을 8,000원 9,000원을 받거든요. 또 그래서인지 국을 끓여 먹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한우를 사는데 전 그 시장에 가서 사고 그냥 구어 먹는다든지 아니면 양념을 해서 불고기를 한다 그랬을 때는 백화점에 가서 수입고기를 삽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고기를 수입고기와 한우에 분별을

할 수 있는가 물어보았더니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할 수 없어요. 제가 먹어보니까 지금 수입고기 지육으로 들어온 것들을 불고기로 잘 썰어서 둥글둥글하게 징기스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파는 것들이 백화점에서 많이 파는데, 그걸 사다 먹어보니까 고기 괜찮거든요, 그냥 양념 안하고 먹어도 그런데 사람들의 그거 한 우라고 팔면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저희 소비자연맹에서, 여기 이영진 박사가 와있습시다만, 이 박사하고 그때 농림수산부 과장님을 모셔다가 부위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부위별로 지육을 갖다 놓고 저희 회원들, 소비자들 그날 180명 정도 왔는데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는 84~85년 그때부터 본 소비자들이 지금까지도 그저 떡심이 들어 있는 등심이나 알까 다른 것은 몰라요. 사태살이나 알까 다른 것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위별로 판매를 해놓고 보니까 소비자들은 더 속을 수 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소를,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한테 쇠고기를 얼마씩해서 경락을 받아 읍니까 물어보니까 서울시는 세 군데서 도살을 해서 경락을 시키는데 거기에서는 한근당 만원짜리에서 4천원짜리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때 4천원짜리 고기 — 국내소라고 아까 비육소라고 칭하는 쇠고기라도 4천원짜리는 여지껏 한번도 사먹어 보지 못했습니다. 모두 8천원에서 만원 이상이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 그것이 고급육, 그것이 특등육인가요 —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원이상 받고 있거든요. 그것이 정말 특등육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도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양심을 가지고 파는 사람의 경우는 4천원짜리 가지고 4천원이라고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가 안남는다고 하면서도 남기고 장사를 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이런 데서 카바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속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공산품의 경우에는 중저가 상품판매로 성공을 한 그런 기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한우의 경우는 먹이를 잘 먹인다는지 그래서 고급질로 할 수 있다면 그 고기는 그 고기만 먹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하고, 4천원짜리 비육소라든지 그런 등급의 고기는 그것만 파는 곳을 따로 해줘서 그것만 따로 먹게 하고, 수입쇠고기를 먹는 사람은 수입고기만 먹게 하면 별로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꾸만 고급쪽으로 유도를 한다든지, 한우다 수입고기다 하고 등급을 지어서 판매를 하고, 마치 한우 고급육을 먹는 사람은 신분이 다르다든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에 대한 체면 유지비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 소비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통하시는 쪽에서 수입육은 가격이 낮기 때문에 더 높여 받으면 어떻게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값 좋고, 양 좋고, 질 좋은 쪽의 좋은 고기를 사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건데, 지금 한우고기 4천원짜리 가져다가 만원 받아도 모르는 이러한 판국에 수입고기까지 올려놓으면 4천원짜리는 정말로 인제 없다는 얘기 거든요. 한우고기가 15,000원에서 20,000원까지 십만원까지 올라 갈 수도 있는 가격유도를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발상은 유통 쪽에서 고급화를 부르짖는 쪽과 아니면 눈 먼 소비자들이 짠 것을 비싼 것으로 둔갑을 해서 팔아도 서슴치 않고 사가는 소비자와 판매하는 쪽에서 하는 이야기지, 수입쇠고기도 못먹는 소비자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부위별로 판매를 하는 것이 성공을 하려면 많은 소비자들이 그것을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교육, 홍보를 해야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 소비자연맹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별로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가능하시면 저희 민간소비자단체 부인들이 모이는 제일 좋은 계기는 저희 같은 일을 하는 곳에 중간역할 심부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어 있으니까 적극 지원해 주

시면 저희들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이 속지 않고 좋은 양질의 고기를 싼 값에 살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는데 적극 돕겠습니다.

좌장 : 토론에 참석하시는 데는 전문가일 필요는 반드시 없습니다. 그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애로를 말씀해 주시고, 생산자대표도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낙농육우협회 진교복 이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교복(낙농육우협회 이사) : 소값 내지는 소 두수 문제는 과거 80년대에 그 엄청난 시련을 한번 겪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사람은 지금 곱을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80년대 초에 국내소가 자급자족 수는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우루과이라운드니 수입개방 압력을 지금보다는 덜 받을 시절이었는데도, 엄청난 양의 수입쇠고기를 들여왔기 때문에 소값파동이 났습니다. 그때의 그 소값파동 때문에 우리 나라 소기르는 농사꾼이 목숨을 자기가 끊는 비극이 벌어졌던 그런 현상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소 축산의 현재를 낳고 있는데, 국내소로 거의 70% 정도의 자급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회는 90년도 쇠고기 수입량이 소비량의 50%를 상회하는 이런 수입 정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기르는 농사꾼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끝나는 시간이면 우리 소기르는 것도 끝나는 시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우 그 종자가 좋은 우수한 소도 가임암소를 새끼를 배기 전에 처녀소를 전부 비육을 해서 잡아 먹었습니다.

이제 소값이 한우 숫소의 경우 송아지가격이 170만원에 육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농가에서 한두마리 가임암소를 입식시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번식기반이 이제 막 되살아나려고 하는 시점에 있는 겁니다. 지금 물론 소값이 비싸다고 하는 이야기는 비교의

대상이 싼 수입쇠고기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 아까 김재창선생이 말씀하시다시피 그 대상을 달리한다고 하면 조금 이해가 달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도도체 소 한마리를 기르려면 20개월 내지 30개월의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전 정력을 기울여서 길러야만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반해서 이 사회는 아주 가볍게 취급하고 쉽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쇠고기를 들여다가 물량공세는 물론이거니와 가격공세까지 거기에 첨가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소기르는 사람이 살아 남을 수 없는 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지나간 수년동안에 안 사실입니다.

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소를 400여두 기르다가 이제 인력난도 당할 수가 없고 해서 사람하나 데리고 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100두선으로 줄였습니다만, 그것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그만두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아지값이 170만원이 되니까 도저히 저는 지금 현재 겁이 나서 입식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송아지 값이 비싸다고 하는 것은 제 시각에서는 어느 것을 대상으로 하느냐 하면 큰소로 길러서 현재 값으로 받는데 밀소가 비싸기 때문에 그 마진이 없다 이겁니다. 저 생각으로는 생산자 대다수가 가격이 비싸고 싼데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육을 하는 사람은 적은 소에서 큰소까지의 마진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소값이 비싸다고 해 봤자 투입 자본금만 더 늘 뿐이지 마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육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가격에 신경을 그렇게 안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가정책이 만년지대계의 정책을 세워가지고 소기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정책만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수입쇠고기 정책이나 소값 안정대니 해서 상당히 정부가 농민에 대해서 신용을 잃었어요. 그래서 안정대를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믿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우리 농민이 믿는 시기가 온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통면에서는 이제 소비자연맹에서 오신 선생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도매시장에서는 각양각색의 고기가 천차만별로 가격이 이루어지는데, 정육점 판매창구에서는 똑 같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감독이나 감시의 눈으로서도 여태 그걸 규제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김재창선생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정육업자가 소를 사가지고 와서 도축하는 도축장이 따로 있고, 생산자가 도축을 해서 판매하는 도매시장성격의 도축장이 따로 있는데 생산자가 출하하는 것은 8시간 이상 계류를 시키고 상인이 소를 사가지고 가서 잡는 것은 그냥 그 시간으로 소를 도살한다 하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정부는 지방육을 대도시에 반입을 허가하는 시기가 있다가 그것을 못하는 시기가 있다가 이게 체계가 들쭉날쭉 합니다. 왜 이사람들이 이것을 허가를 했다가 안했다가 이러느냐?

내 생각 같아서는 산소를 직접 소비지 도축장에 들여다가 도살을 하면 여기 소비자가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전라도 도축장에 가서 도축을 해서 그 죽은 고기로 여기까지 싣고 오면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어느 것이 불법이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의 체계로 정해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통에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소의 내장 내지 부산물 전체의 판매제도 자체가 옛날에 지육 한 마리가 판매되면 소 부산물도 한 마리가 소비되던 시장이었는데, 지금 수입쇠고기는 지육만 들어오고 내장은 안들어오고 있으니까, 지육 두 마리에 부산물이 한 마리분밖에 공급이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풀귀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매시장에서 남의 상품을 도살을 해서 위탁판매를 하는 위탁판매상이 모업체하고 부위별로 이것

을 수익계약을 해 시중값의 약 3분의 1 내지 4분의 1값으로 팔아서, 생산자에게 주는 값이 일반 소시장에서 자유판매되고 있는 가격하고의 차이가 약 15만원 정도이며, 이것을 프리미엄으로 영뚱한 사람이 지금 수입을 취하고 있는 이러한 유통상의 부조리가 문제로 제기해서 지금 농림수산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조리가 많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소키우는 사람이 가장 신경이 가는 데는 수입쇠고기를 얼마나 수입을 해다가 방출을 하느냐 또는 가격을 얼마에 방출을 하느냐에 신경이 쓰입니다. 그것은 저는 생산자로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산자가 다소 국제가격에 비해서 여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비싼 가격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여기에 기반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수입쇠고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점입니다. 그것 저것 다 없어져서 아주 생산기반이 전무하다고 하면 상대국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더라도 비싸게 살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데서 지금부터라도 현재 기반에서부터 적어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선까지는 축산을 권장해서 기반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복(축협중앙회 이사) : 요새 쇠고기값의 상승문제는 정부의 입장에서 물가관리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가격안정처방을 모색할 수 있는냐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이와 같은 모임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소사육농가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볼 적에 지금 이런 가격안정에 대한 불안보다도 UR협상과 관련해서 축산물의 수입개방이라든가 또한 근자에 와서 거론되고 있는 농축산물 수입제도 간소화 조치 등이 소사육 불안심리를 가져오게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소값 상승요인을 살펴 볼 것 같으면, 우선 첫째로 이 송아지 가격이 오르면 과거에 암소비육하던 농가들이 번식쪽으로 전환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암소 출하두수가 감소되는 현상이 소값

상승에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지 않나 보여지고 있구요. 두번째로서는 육질 좋은 한우고기에 선호계층이 날로 증가되고 있지 않느냐. 고정수요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또 가격상승에 요인의 하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동가격제 폐지로 인해서 소비자가격이 자율화되고 또한 지자체 선거 등으로 소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인해서 출하를 관망하는 그런 경향이 또한 소값상승에 요인의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육우 출하후에 대체입식할 송아지가격이 오르다보니까 이것을 과거에 400kg 전후에서 출하를 하던 것을 500 내지 550kg로 증체 출하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사육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서 일정기간에 출하 감소현상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가격양등 요인으로서 작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또한 최근에 우유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원유대를 낙농가가 유리하게 수취하게 됨에 따라서 젖소에 도태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다시 그 출하에 감소를 가져오게 되어 가격 상승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상인들이 가축시장 거래를 외면해서 문전거래 등이 상당히 성행하여 가축시장의 출장두수가 적다 보니까 이것도 시장거래가격을 부채질 하는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백화점이나 전문 요식업소 등 대량 수요처에서 고객확보를 위해서 품질이 좋은 한우를 직접 산지에서 높은 값으로 사는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요인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끝으로 기본 두수가 절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년도에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쇠고기 수요량을 보면 약 18만 3천톤을 잡고 있습니다. 이 18만 3천톤 중에서 한우고기로 충당될 수 있는 양을 54~55%로 본다고 하면 약 10만톤에 해당이 되고, 이는 67만여두의 두수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는데, 현재 사육되고 있는 총 마리수는 162만두로 발표가 되어 있고, 그중에 가임암소가

76만두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86만두 정도가 되고, 이 86만두 중에서 실제 1세미만의 송아지가 약 67만두 정도를 통계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내산 총당 대상 두수에는 한우 이외에 젓소도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순수한 한우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잡아 먹을 수 있는 대상 우로는 20여만두에 불과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며, 또 2000년대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정량의 한우고기로서 자급을 해 나간다고 전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정 증식수단도 장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대체관계는 농림수산부 김과장님의 소상한 발표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드리면서 언급하지 않은 사항 몇 가지만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는 경제기획원의 이과장님께서도 배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도매물가지수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재조정된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가당국에서의 호응이 염려는 됩니다만 한번 쯤 짚고 나가야 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실례를 들어 볼 것 같으면, 지금 농수산식품 중에 식품의 가중치가 144.9로 그중에 쇠고기가 12.7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쇠고기를 국내산이 9.2고 수입육이 3.5로 되어 있는데, 지금과 같이 국내산 쇠고기와 공급물량이 50% 대 50%, 어느 면으로 봐서 수입쇠고기 측이 더 물량면으로 봐서 많다고 보아지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 웨이트(가중치)를 국내산이나 수입육을 같게 하여 물가관리, 쇠고기 가격관리를 어느 정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또한 전자에 두수관계를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일정 생산기반의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거와 관련해서 한우 개량단지 사업이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사육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측면이라든가 한우개량 측면, 쇠고기 수급, 고급육의 수급 등 다각적으

로 기여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소사육농가의 사육의욕을 고취시키고, 또한 사육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사육의욕의 고취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농림수산부 김과장님께서 가격예시제 등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안정대가 현실에 부합되도록 마련된다면 사육농가들이 마음놓고 소를 사육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소사육 여건을 마련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여러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해야 할 한 가지 만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사육농가들은 지금 농후사료의 확보가 배합사료 이외에는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수입개방화와 관련해서 그래도 생산비를 적게 소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료비를 절감해야 하나 현재로서는 사료비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사료는 배합사료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미사료나 또한 혼합사료형태로 해서 공급을 해서 농가 스스로 부족한 사료를 첨가해서 먹일 수 있도록 해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고급육 생산기술관계도 빨리 보급해 이왕 비육을 하고 소사육을 하는 마당에 고급육을 제대로 생산해서 소사육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좌장 : 그러면 정부측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방청석에 계신 분들 가운데 몇분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생산자이신 김재창선생께서는 ‘소값을 이대로 두자, 그리고 또 82년 제일 높은 때와 비교해서 그렇게 오를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소값파동이 무엇이나, 올라가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나, 폭락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나, 과연 그러면 소값파동은 올 것이나, 어

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것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입육문 제, 물가문제, 생산기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좀 천천히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가장 오늘 논쟁의 핵심이 되는 것이 소값파동은 과연 올것이나? 폭 등은 곧 폭락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괜찮 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사가지고 들어가 서 마지막에 큰 손실을 입는 이것을 막아보자는 목적에서 소값안정 이 야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아지는데 과연 소값파동은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좌석 뒤에 앉은 분들 가운데서 고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룡(낙농육우협회 전무) : 소값파동이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작년 근로자의 임금이 상당히 올라 쇠고기 수요처가 과거 에는 고급처 즉 상류층이었는데, 중간층 근로자들의 쇠고기소비가 많 이 늘어났습니다. 이 근로자들이 과거에는 집을 사려고 저축을 했는데 근로자들이 저축의욕을 잃었습니다. 때문에 저축의욕이 생길 때까지는 아마 쇠고기소비는 상당히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값도 다른 것 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근로자 노동자들이 일당 5만원, 6만원 받아가 지고 고기를 산다고 할 것 같으면 돼지고기, 쇠고기 상당히 많은 양을 가족이 몇 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그 사람들이 쇠고기 수요처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상당히 폭발적 으로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사람들이 집을 사지를 못해가지고 집살 것 대신 에 마이카 차를 삽니다. 그래서 좁은 방에 있느니 여름, 봄, 가을 전부 들로 나갑니다. 들로 나가면 쇠고기를 가지고 나가서 구워먹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지출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축의욕이 없는 한은 쇠고기수요는 상당히 늘어날거라고 보 니다.

그럼 83년도 84년도에는 소값이 상승되어 어느 정도 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수요에 충당이 되었지만 지금은 자급도가 금년에는 50%도 더 떨어지리라고 보는데 나머지 50% 정도를 국내에서 자급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가 늘어난다 해도 수입고기관계 조절만 한다면 소값은 절대 폭락을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육하는 사람들도 소값이 올라간다고 해서 소를 사육을 얹거나 더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비육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나 하면 낙농하던 사람들이 낙농을 집어 치우고 우선 우사가 있고,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비육우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낙농은 지금 우유가 모자란다 하지만 낙농관계는 불장 다봤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 이 사람들이 우선은 비육으로 돌아옵니다. 비육을 하다가 다시 폭락하면 포기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소값이 수요관계 때문에 송아지 생산은 한정되어 있고 낙농하던 사람들이 젖소를 다 팔고, 거기다가 소를 집어 넣고 하니 거기서 송아지 수요가 좀 딸리기 때문에 소값이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값관계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우유관계가 문제인데, 지금 젖소 처녀소들이 많이 잡힙니다. 특히 우유가 모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처녀소들이 잡히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 젖소 숫놈 지육값이 소매시장에서 7천5백원부터 7천7백원 잡니다. 근데 젖소 숫놈 과거에는 숫놈값이 더 비싸고 암소값이 싼데 지금 처녀 암소값이 얼마나 가느냐 하면 8천원대 잡니다. kg당 경락가격이 한우하고 젖소 숫놈하고 중간에 이르는 것이 젖소 암소가격입니다. 이 때문에 이 처녀소들이 새끼가 들어갔건 안들어갔건 팔아가지고 많이 도축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고급육으로 둔갑이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젖이 모자란다 해서 5% 증산운동이 벌어지고 있지만 낙농도 하고 비육소도 하기 때문에 값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젖소가 자꾸 도태되고, 경

산우 값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경산우 값이 떨어지지만 처녀젖소 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도태가 많이 되어 젖소 낙농기반이 상당히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떨어지지 않으리라고 전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 비육하던 사람이 한우를 들여놓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있는데, 지금 소 한마리 팔아가지고 그 전에는 큰소 한마리를 팔아가지고 2~3마리 송아지를 사서 넣었는데, 큰소 3마리 팔아야 2마리 사서 넣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고 젖소 값이 지금 싸기 때문에 한우하던 사람들이 자꾸 젖소를 비육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기반이 붕괴될까봐 우려도 있으나 소값은 떨어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좌장 : 그럼 소값은 계속해서 오를 것 같습니까?

김남용 : 크게 오르지 않는지만 봄이 되면 더 오르지 않을까 봅니다.

좌장 : 금년 여름, 가을, 겨울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남용 : 가을까지, 봄에 최고수준까지 오르는 것이 고작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좌장 : 김남용 낙농육우협회 전문님은 직접 소를 많이 기르시고 협회 전무를 보셔서 상당한 전문의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다른 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소값파동이 일어날 것이냐, 소값이 올라 갔다가 폭락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각도에서 축정과장님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주십시오.

서제원(강원도 축정과장) : 소파동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일선에서 보았을 때 지금 소파동이 온다 하는 것은 가임두수가 이제 늘기 시작했고 또 도축장에서 소를 잡는 것이 암소두수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줄었으며, 그것은 농가에서 소를 많이 키우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두수가 증가가 되어 84년도와 같은 물량과잉에 의한 소값파동이 올 것이라는 염려에서 나오신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84년도에 소값파동이 올 때에는 시골에서 농가교육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소를 키워보기 위해서, 소를 키워서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 순수한 농가도 있었고, 도시에 유희자금을 갖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도 농촌을 상대로 해서 소를 키워가지고 보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시점으로 보서는 소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은 유희노동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도시에 돈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현재 농촌에 있는 농민들도 소를 막 키워 볼려고 덤벼들 수 있는 용기와 재력도 없는 사람들만 농촌에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값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누가 덤벼들 사람은 없고 현재 재력도 없는 사람들만 농촌에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값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누가 덤벼들 사람은 없을 것이며, 현재 소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늘리는 두수 이외에는 더 덤벼들 사람이 없는 농촌의 실정이기 때문에 소값은 크게 파동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는 돼지의 예를 들어 보면요, 전에 돼지값이 조금 좋다고 그러면 도시 근교에 한 두 마리 키우는 사람들이 유희노동력과 잔반을 이용해서 키우기 때문에 사육두수가 굉장히 늘어서 돼지값이 떨어지고 또 돼지값이 폭락이 되면 소규모로 하던 사람들이 전부 내버려 다시 돼지값이 올라가고 했는데, 지금 돼지값이 계속 유지되는 걸로 봐서 돼지를 키울 수 있는 사람이 키우는 것이지 돼지값이 좋다고 그래서 누구나 덤벼들 수 있는 그러한 농촌의 여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소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소값이 올랐다고 해서 소의 파동은, 마리

수 증가에 의한 파동은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청석 : 저는 소값파동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파동이 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축산정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암소도축 제한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소값파동이 올 것이고, 현재와 같이 암소도축이 허용된다고 한다면 소값파동은 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오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현재 농촌에 소득대체품목이 없습니다. 현재 금년에도 이루어진 상황이지만 추곡수매가가 상당히 어려워져서 이제 농민들이 농사를 더 이상 질 수가 없어 농촌에 더 머무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현재 어려워진 농촌에 소득작목을 선택할 것이냐. 역시 축산중에도 양돈 부문은 투자액이 많습니다. 축사 건축에 투자액이 많고 한우는 이제 그 옛날 같이 고정화해서 붙잡아 매서 기르던 것을 인건비 절약이라는 차원에서 이제는 개방식으로 이렇게 사육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소도축 정책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소값파동이 온다 안 온다 하는 것을 갈음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형(농림수산부 축산경영과장) : 가격에 있어서 큰소나, 송아지나 80년대에서 83년까지 숫놈은 2배, 암놈은 4배 올랐습니다. 또 87년에서 90년까지 숫놈의 값은 큰놈이나, 작은 놈이나 그것도 2배, 3배로 올랐습니다. 이 상황은 같습니다. 그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여건으로 봐서 그때는 실명제사건이 있어서 돈이 조금 시골로 흘러갔고, 또 소비가 좀 늘었고, 그 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과소비 풍조에다 여러가지 봉급 오른것, 인건비 오른것 이런 것이 소비성향으로 가서 그런게 조금 비슷한 관계에 있습니다. 단지 그 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그 때는 입식자금을 많이 풀었고 정부가 장려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것을 앓고 있고 단지 정부에서 한우개량 단지 100개소를 중심으로 해서 송아지 증식 정책을 쓰고 있는게 곧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과거에 75년, 79년, 84년, 89년 모두가 축산물에 불황—지금 파동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파동이 올 때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보려고 우리가 지금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경기침체하고 겹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년에 쇠고기가 23%에서 25% 사이가 소비가 증가되었고, 지금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니까 돼지고기 값이 굉장히 비싼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의 경기가 계속될 것이냐? 매년 23%씩 소비가 계속 늘어날거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우에 있어서 가임암소 숫자도 늘고, 그 다음에 수정시키는 상태도 늘어나고 암소도축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임신된 것이 3년 뒤에 결과가 옵니다. 또 작년에 소가 약 150만두에서 160만두로 한우가 10만두가 늘었습니다. 저희는 금년에 한우가 15만두 내지 20만두 늘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상태가 계속 되었을 때 우리가 수입쇠고기 또 줄인다고 해서 한우가 나올 것이냐, 그렇지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재작년에 작년에 도축체중이 약 430kg에서 지금 450kg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급육 관계 장려후로는 앞으로 3년 후에는 한 500kg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산하는 고기생산량 증가, 소 두수도 증가, 또 해마다 이렇게 작년 금년과 같이 소비가 늘어날 것이냐,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아마 한국의 쇠고기는 전부 수입해다 계속 먹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여건의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앞으로 3~4년 후의 파동차원 보다는, 소값의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또 한번 소란을 겪어야 될 지경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볼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좌장 : 3년 후에 파동이 오지 않겠는가, 85년보다는 좀 약할지도 모르겠지만 오지 않겠는가 이야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82년 3월에 송아지값이 117만원 올라갔는데, 파동은 84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85년부터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암소가 들어가서 가임암소가 들어가서 송아지를 낳아서 그놈이 나올 때, 2년정도 3년정도 이런 시차가 있다는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범(충남 서산, 양축농가) : 저는 서산에서 조그마한 비육목장을 하고 있는데 규모는 작습니다만 한 20년 가까이 축산을 해왔습니다. 무식하기 때문에 숫자상이나 그러한 것은 잘 모릅니다만 그동안 경험에 비추어서 10년 주기로 소값파동을 겪어왔습니다. 요즘 가임암소가 늘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저도 비육과 송아지, 암소도 20두를 넣어가지고 전부다 수정시켜 가지고서 제가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못되어서 전부다 출하를 했습니다. 번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후년 쬐으면 자연적인 하락이 올 것으로 믿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같이 과거처럼 수입이 계속된다고 보면 수입이 정체됐을 적에는 한우 생산기반은 살아나고, 수입물량 들어오는 것은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소비가 따라 주지 못했을 때는 그때는 불가피하게 폭락이 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한우기반이 정책에 따라서 아주 취약해졌습니다. 그야말로 내년에 우리 한우농민들은 폭락시키려면 폭락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명의 사육농가 보고 물어보면 8명 쬐은 등갈퀴리다가 섞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축산정책을 크게 불신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뭐가 이득이 좀 있다고 그러면 수년의 적자를 생각지 않고 지금 막 넣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배려를 해가지고 축산정책에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황일남(강원도, 강릉축협조합장) : 지금 가격안정, 파동 뭐 이랬는데, 나는 가격파동을 지금 조장하고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값, 송아지값 생산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정상 궤도에 지금 진입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상인 것을 오히려 파동을 만드는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농업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하도 많이 하고 있고, 의심을 많이 하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또 부동산 투기의 의식화가 팽배해서 이견 축산에 또 투기 다시 말해서 '소값 올라가니까, 송아지값 올라가니까 큰일났다' 이래가지고 소를 또 수입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상태가 또 내재되어 있지 않는가? 이런 의심도 갖게 됩니다. 파동이 오는 것을 상당히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우리 국내에서 조절하는 것을 놓아두고, 우리 나라 농민이 다 없어지고 외국것만 갖다가 전부 먹는다면 그러면 파동이 없겠느냐?

지금은 우리는 모든 자급을 국력의 자급화, 국민의 화합화, 민족의 화합 이런 것을 부르짖고 또 염원하고, 지양하고 있는 시점에서 모든 기계의, 움직여지는 힘의 에너지는 한방울도 나오지 않는데, 외국에다 의존하고, 거기에 또 운동경기 때에는 사람의 에너지 -아마 단백질이나 탄수화물 사람의 식량마저 자급을 못하고, 외국에 의존 한다 하면 그 이후에 완전히 의존상태에 갔을 때 얼마나 더 큰 파동이 올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이런 공청회가 이루어졌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좌장 :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거의 절반 절반 온다 안온다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절반 절반으로 보느냐 하면, 후분들은 상당히 3~4년이라는 여려가지 시각을 가지고 지금 보시고 있고, 앞에 이야기하신 분들은 매우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고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에 계신 두 분

게 지금 소값파동은 올 것이냐, 이것만 간단하게 온다. 안온다. 이야기
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석진(영남대 교수) : 아까 앞에서 정찬길교수님께서 예측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예측이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예측을 해 보았는데, 과거의 패턴이라면 적어도 90년대를
피크로 해서 소값이 내려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차를 1년 연장을 시킬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
느냐 하면 물론 여건이라는게 전제조건이 되어 됩니다만 올해를 전후
해서 저는 하강국면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폭등이다, 폭
락이다라는 용어보다는 쇠고기 주기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워낙 과도기를 겪어왔기 때문에, 뚜렷한 주기가 잡힌
다, 안잡힌다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가까
운 일본 화우와 한우의 생리적인 사이클이 유사하기 때문에, 생산환경
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소의 정상적인 주기는
6년 내지 7년입니다. 미국은 10년입니다. 미국은 왜 10년이나. 미
국은 소값이 변하게 되면 생산자가 모우부터 조정에 들어 갑니다. 암
송아지를 키우는 데서부터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를 보면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현재의 상태에서 두수를 한두마리 줄일 것이냐. 도축을 연장시
킬 것이냐, 이런 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느냐? 그래서 한국에 있
어서의 소 주기가 6년 내지 7년 주기라고 그런다면 적어도 올해를 고
비로 해서 하강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은 아까 앞에서 어느 분이 말
씀하셨다시피 2~3년후에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도
입식송아지, 암송아지 입식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은 적어도 그
것은 시장에 출하되기 위해서 앞으로 2년 이후에 그와 같은 현상이 영
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와 결부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

문에 만약에 고급육의 비율을 높이면서 수입을 증가시킨다. 이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 하강국면과 수입량 증가가 중복이 되게 되면, 과거에 우리가 83년도에 소 입식자금 방출과 상승국면이 중복이 됐습니다만, 중복 효과가 상승효과를 나타내서 더 큰 가격상승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측면에서의 수요증가가 최근과 같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냐 이걸 보장 못합니다. 그렇다면 대량으로 수입해 왔을 적에 수입한 고기가 완전히 소비가 소진되기도 전에 국내생산이 늘어나게 되면 파동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수입정책과 국내정책이 두 가지를 놓고 정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온다 안온다 말씀을 드리기도 보다는 지금 현재 과거의 패턴을 본다면 이미 소값은 하강국면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올라 갔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91년도에 소값이 하강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찬길(건국대 교수) : 파동문제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EPB에서 와계십니다만, 대량수입의 구실을 안겨주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제가 접근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까 폭락은 아니고 향후 1년, 금년 말까지는 정체상태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계량적인 예측결과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팩터(요소)가 앞으로의 수입정책과 돼지 양돈산업입니다. 아까 몇 분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럼 앞으로 정부가 만5천톤을 수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도축 10만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만톤이면 67만두 내지 70만두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현재 상태로 수입을 7만톤 수준에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무제한 수입을 할 것이냐. 여기에 커다란 격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돼지산업인데, 쇠고기를 그렇게 방출해도 돼지고기 값이 떨어질 줄 모른다. 왜 그러냐? 공해문

제 때문에 돼지사육 두수증가, 농가수에게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사육지도 거의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논 주위에 사는 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돼지농장을 사서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가 비싸서 우리 나라의 중산층, 소위 돼지고기를 많이 소비했던 층의 그 소비자들이 쇠고기로, 또 전부다 소득이 상승해서 쇠고기 소비로 전부다 집중되는 이런 문제들이 주위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단 전제는 정부가 앞으로 쇠고기를 대폭 수입하지 않는다.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돼지 양돈산업의 추세가 당분간 이 추세로 계속 된다 하는 전제하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금년말까지는 급격한 파동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시작할 때 송아지가 임신가능 연령이 14개월부터 24개월이고, 그 다음 임신 9개월입니다. 육성 비육해서 나가려고 하면 17개월에서 19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전부가 다 40개월부터 52개월이 걸려요, 3년 내지 4년 반인데 지금 91년이기 때문에 95년의 이야기가 되지요. 95년의 이야기가 되는데 이때의 결과가 지금 현재 암소의 가임암소수가 늘어간다 해도 현재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우리 나라 한우 사육두수가 250만두까지 갈 때는 괜찮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250만두가 넘어간다고 하면, 수입한 것에 국내 사육두수가 합해가지고 250만두가 넘어간다면 이게 상당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95년 96년 그 사이에 250만두 300만두가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 이 사이에 있습니다. 현재의 추세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폭락사태가 없다. 다만, 여기서 정책적인 변동에서 대폭 수입이 된다면, 양돈산업이 육성되어 - 왜냐하면 양돈은 굉장히 탄력적이니까, 상당히 탄력적이니까 일년에 2.2짜이클이 되기 때문에 평균 산자수 13두를 하게 되면 26마리, 28마리, 29마리 계속 늘어나게 되면 - 이것은 상당한 대체효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양이 공급되면 달라집니다만 현재의 상태로 보게 되면 급락사태는 없지 않겠느냐. 정체 그 상태로 금년 말까지 유지될 것이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95년, 96년도에 문제는 이 두 가지 변동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김경남(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장) : 소값과동에 관련해서 그 관련된 상황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83년도에 소값이 크게 상승했을 때 그 상황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하고 비교를 해 보면 아주 흡사하게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80년도 말에 수소 400kg 가격이 80만8천원이었습니다. 계속 상승을 해 81년에 120만원, 82년에 150만원 이렇게 83년도를 피크로 계속 올랐는데, 사육두수는 80년도 160만두에서 150만두, 153만두, 150만두로 이렇게 점차 줄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3월에 158만8천두로서 그 시점하고 비슷한 양상입니다. 가격은 오르는데 두수가 줄었거든요. 약 1년 가격이 오른 후 두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1년 반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소가 증식추세를 보였는데 첫해에 작년 3월이니까, 금년 3월로 보면 1년이 아납니까? 첫해에 6.7%가 증가를 했습니다. 사육두수가 그 다음해에 2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해는 26%, 그 다음에는 증가율이 좀 줄어가지고 21%, 10% 이렇게 줄었거든요. 지금 현재 전체 사육규모나 번식우 가임암소 증가속도가 8% 수준에 있습니다. 옛날에 가격이 사육두수가 최저선에서 올라가지고 늘기 시작해 1년 동안에 6.7% 그 다음에 20% 수준이 증식됐는데 지금 8%라는 이야기입니다. 작년 최저수준에서 현재까지 1년간에 8%의 증식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내년 이맘때면 20% 수준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해에 20%, 그 다음 해에 25~26%수준된 후 이제 공급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 예상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앞으로 공급물량이 상당히 많아져 가격이 떨어진다고 예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장 : 제가 지금 종합을 하건데, 예측자체가 하나의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KBS나 MBC 기상예보를 하는 분이 내일 비가 올 것 같다고 해서 하느님이 괘뻐하다고 비를 안오게 해야 되겠다고 이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결국 생산자들이 하시기 때문에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보고 돌아가서 거꾸로 해버리거나 옳게 해버리거나 하면 바로 그것이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찬길박사께서 그점을 강조를 하시는데, 사실입니다.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정적으로 하게 되면 80년대 중반에 얻어 맞았던 그와 같은 엄청난 폭락현상은 없을 것이다, 또 이 이상 폭등현상도 없을 것이다, 여기 대충 의견이 일치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금년 소값은 5월을 전후해서 조금 더 오르고 풀이 나고 하면 또 기르려고 하겠지요, 그럼 좀 올라 가다가 여름, 가을 쯤 되면 이제 살짝 고개를 숙인다 하는데 대충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명년 저 명년 이삼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상당히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이 대답은 우리 나라 지금 소사육 농민들이 공청회를 했더니 소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더라 하는 소문이 전국에 나서 그러면 늘리자. 이렇게 되면 그렇게 많은 분이 마음을 먹으면 소값 파동은 옵니다. 그렇지를 앓고 위험하다 새로 들어가서도 안되겠다. 또 수입이 많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심조심 하시면 상당히 길게 그저 못이기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나아가지 않겠는가 대충 저는 이렇게 보아집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지금 90년말까지 통계를 보니까 아주 극적인 변화는 안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82년 송아지 값이 117만원 올라간 바로 이듬해인 83년에 암소도축율 한우, 육우, 젖소를 합해서 암소 도축율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한우 암소도축율이 10%까지 떨어졌어요. 보통 30~40% 50% 이렇게 가는데, 그런데 암소도축율이 90년에 보면 아직 45%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암소도축율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소값이 그런대로 갈 것이다 하는 판단을 생산자들 스스로 했다고 한다면 암소도축율이 이 시점에서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만일 이것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고 하면 2~3년 후에는 소값파동이 올 것이

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암소를 안내놔요. 전부 그 번식우하는 사람들이 자꾸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쇠고기 공급은 지금 시장에 덜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1년, 2년 후에 쏟아져 나올 때에, 아까 전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한우고기 주세요, 국내산이요’ 이런 꼭 한우육을 찾는 소비자가 과연 지금보다도 1년, 2년 후에 더 많이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에 지금 뱃속에 있거나 또 가임이 되거나 하는 그 소가 나올 때에 한우육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거냐. 또 가임이 되거나 소가 나올 때에 한우육에 대한 수요가 이 시점보다 그렇게 터무니 없이 많아지리라고 생각이 안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2년 내외 어디에선가는 값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고, 한가지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 두셔야 할 것은 아까 80년 우리가 과거에는 5년 주기로 쪽 왔습니다. 한 바퀴 돌았다가 떨어지는 주기가요. 그래서 그것도 75년, 80년, 85년 이랬는데, 85년은 정책변수가 강하게 들어 갔기 때문에 정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야! 소값이 내려가서 빨리 올려야겠다 해서 수입도 많이 하고 뭔가 다른 조치를 자주 취하게 되면, 이거 소값이 올라가서 빨리 내려야겠다. 송아지를 수입한다든지, 이런 작동을 하게 된다면 이제 폭 더 내릴 것이고, 국민이 인내하고 지긋하게 눈을 감고 있어보면 슬슬 내려올 것도 안그리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가지 작동을 하면 폭 더 내릴거고 대충 대답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쪽이 맞을 것이냐 그것은 여기있는 사람들 대한민국 생산자, 정부 전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 해답은 오직 하느님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현재 송아지값이 150만원, 큰소값이 220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괜찮으나,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물가차원에서 이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논의를 좀 간단 간단히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직접 물가를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용희과장님은 농업에 대한 이해도 많이 하시려고 그리고 농업분야를 많이 도우시려는 분입니다. 이용희 국민생활과장님 이야기

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용희(경제기획원 국민생활과장) : 어떤 면에서는 여기 나와주신 생산자 여러분들과 이해를 같이 하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경제전체를 생각하다보니까, 또 물가안정이라는 대전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서 있습니다. 간간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기획원에서 하는 여러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우선 생산자를 대표하여 충남 아산에서 올라 오신 김재창선생님께서 몇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요즘에 소값이나 쇠고기값이 과연 올라간 것인가 하는 판단 문제입니다. 그럼 과연 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 할 때의 기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참 관념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적정가격이 과연 어디냐 하는 것을 산정해 놓지 않고서는 우리가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과연 적정가격이 얼마야지만 적정하냐? 그 문제만 가지고 논의를 한다고 해도 밤새도록 하여도 아마 결론을 못내릴 겁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편의상 비 전년말 내지는 작년 아니면 일년전, 물론 길게 보게 되면 10년전, 5년전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럼 요즘에 최근에 작년 1년전 물가만 잠깐 비교를 해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소비자물가가 무려 9.4%로 올랐다고 이렇게 지수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농축수산물 - 농산물하고 축산물, 수산물을 모두 합쳐서 9.4% 오른 중에서 3.53포인트, 그 중에서 40%가까이가 농축수산물에서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변동률을 보면 그 중엔 30~40% 오른 것도 있고, 100% 오른 것도 있고, 어떤건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해 보면 3.53을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의 경우도 금년 2월까지 보면 전부 소비자물가가 3.5% 올랐는데, 그중에서 1.73%가 농축수산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쇠고기만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소류도 있고 농축수산

물 전체를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럼 왜 농축수산물 가격 조금 오른 것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지분을 조금 더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생산자단체에서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축산을 하고 계시지만 사료를 많이 씩니다. 보리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보리가격을 좀 올려가지고선 사료업자들한테 좀 비싸게 팔면 그게 뭐가 큰 문제가 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모든 생산자들은 전부가 자기가 생산한 물품에 대해서 높은 가격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싼 가격에 물건을 사려고 원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중간자 입장에서 국민경제를 정말 길게 봤을 때, 과연 어느 면으로 우리가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냐. 그것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세워나가야 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공청회도 열고 아마 생산자단체 또 소비자단체 여러분의 의견을 우리가 청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가측면에서 판단하건데 요즘에 축산물 가격상승이나 또 소값상승은 과거의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의 급등현상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농민들이나 소사육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현명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다른 농산물의 경우에 우리가 2년 내지 3년 주기로 되풀이되는 무우파동, 배추파동, 마늘파동, 고추파동을 보면 그것은 여실합니다. 1년전에 고추값이 폭등을 하면 그 이듬해 고추를 많이 심으면 고추값이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구나 알면서도 전부다 고추를 심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식시장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주식가격이 폭등하면 언젠가 떨어질텐데 올랐으니까 사자해서 다 사는 겁니다. 우리 일반서민의 심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에서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막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가지 심리적인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물가당국에서는 상당한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창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제일 가격이 쌀때

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을 자꾸 비교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물론 개중에는 숫자를 그렇게 꼭 꼬집어서 그런 숫자만 인용하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축산물가격이 올랐다고 표현을 할 때는 일년전 내지는 한 2년전 아니면 전년말 최근의 1개월전 가격과 비교해서 타물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얼마 올랐느냐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수입품목에 대해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오해가 계신 모양인데, 저희들이 지금 수입정책은 기본적으로는 개방화라는 전제하에서 수입을 자유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우리 국내의 생산기반이 워낙 취약하니까, 음으로 양으로 정부에서도 알게 모르게 많은 장벽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는 것처럼 해 놓고도 추천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수입이 금지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품목에 가격이 급등을 한다던가, 아니면 수급상황이 안맞았을 때 일반소비자를 위해서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수입을 추천하는 경우에도 거기에서 생산자단체로부터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을 예상해 수입시기를 늦추다 보면 수입을 해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수입을 한 기관이 손해를 보고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쇠고기를 우리가 겨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 농축수산물에 한정해서 하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국내에 어떤 교란작용이 일어나든가 아니면 예를 들면 걸프사태나 기타 다른 여러가지 사태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어떤 어려운 사정에 빠졌을 때 수입추천을 받고, 또 그 추천을 받은 자가 그제서 수입행위를 하는 그 시간들, 그 여러가지 시간을 소비하다 보면 적기 수입을 놓치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하고자 이 수입을 하는데에 대한 일종의 어떤 특례규정을 하나 우리가 만들어 놓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때나

그 주무장관 추천없이 무한정의 물량을 계속 수입하겠다는 의도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가지수관계를 상당히 기술적으로 축협중앙회에 계신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가지수를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5년마다 한번씩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물가지수체계는 1985년도에 우리 국민들 소비지출액을 일년간 것을 전부 모아, 그 중에서 1,000분의 1 이상 비중이 있는 411개 품목을 모아서 지금 지수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85년이면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오랜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의 우리 소비패턴 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왜 매년 우리가 그때 그때 소비자지수나 지수편제를 개편하지 못하느냐하면 일년간의 소비지출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통계를 내서 이것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국에 11개소 시에 있는 소비자를 대표로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샘플서베이(표본조사)를 해서 그 사람이 1년 동안 지출한 액수를 전부 모읍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식료품비 나간 것도 있고, 교육비 나간 것도 있고, 자동차 타는데 나간 것도 있고 모든게 다 나오면 전체평균을 내서 그 중 가중치가 1,000분의 1 이상되는 비목을 모아 411개 품목을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단적인 예로 그 당시에 소비지출이 많았던 농축수산물은 지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면도 있고, 대신 쇠고기 같은 것은 늘어난 부문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당시에는 전혀 대상으로 잡히지도 않았던 휘발유값 같은 게 지금은 자가용들을 많이 소유하게 되니까 이제 휘발유값 자체도 소비자물가에 잡혀야 되는 이런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통계청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 물가지수를 어떻게 개편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91년도부터는 새로운 가중치에 의해서 조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쇠고기 경우에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인데, 국내산 쇠고기와

수입육의 지수를 어떻게 가중치를 둘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거의 50대 50 반반정도가 되는 수준인데 이 비율 자체도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수입육이 계속 늘어날 것이냐 국내산이 더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격예측 만큼이나 수급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는 국내산이 9.2이고 수입산이 3.5로 해서 이것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지만 아마 금년도의 소비자지수 개편안에서 약간 이것이 다시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조정을 했다 해서 내년도에 가서 가중치가 달라지면 또 조정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행정기술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에서 쇠고기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에 대한 각종 대책을 계속 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수급상황이나 가격상황이라는 건 수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쇠고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 보면 수요는 결국 일반소비자 대중들이 얼마나 쇠고기를 찾느냐에 의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대한 원인은 여러가지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소득도 증가하고 식품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되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하여간 수요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상응하여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공급이 못따라가는 이유도 여러가지 이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생산자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정부지원책이 미흡한 면도 있을테고, 공해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문제도 있을테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면도 있을테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나타난 결과로는 지금 국내공급을 가지고는 늘어나는 수요를 절대적으로 못 미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무한정 수입을 하고자 해서 국내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입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수입을 하지 않고 그냥 갈 경우에 국내산 쇠고기만 가지고는 공급이 딸리니까, 소값도 올라 갈테고 쇠고기값도 올라가고 해서 더 큰 소값파동이 예상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부담경감이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모자라는 것을 수입을 안하고 그대로 넘어 갈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요나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또 공급이 모자라는 부분을 조절한다는 의미에서 수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수입되는 쇠고기가 판매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도 알고 있고 또 그동안 수 없는 개선대책을 내 놓았는데 눈에 보이는 개선책 개선효과가 사실 안나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작년도 말의 경우에 보면 한우하고 수입육의 판매비율을 보면 전체 우리 수요의 60대 40정도로 볼수 있는데, 한우 판매점은 95%고 전체 정육점 중에서 이 수입육 판매점은 5% 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40%의 수입육이 이 5% 뿐인 이 판매점을 통해서 시중에 나가게 되니까 그 과정에서 이게 둔갑도 될 수가 있고 각가지 교란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입육 전문판매점을 지금 늘리기도 하고 또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도 하고 또 소비자연맹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소비자들한테 계도도 하고 많은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완전히 유통상태가정상화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생산자한테도 이익이 안가고 소비자한테도 이익이 안되고 완전히 중간 유통상들이 폭리를 취하고 그 많은 이익을 챙겨먹는 이러한 것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농축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유통규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고 농림수산부에 특별 기획단까지 설치가 되어 정책을 많이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일이 지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좌장 : 지금 송아지값 소값 또 물가안정차원 이런 차원에서 누가 한

두분 간단히 꼭 이야기하고 싶은 분 있으면 자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원준(전북 순창축협조합장) :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도가 36% 밖에 안됩니다. 우리가 과거 6.25때, 해방 이후 그 어려웠을 때 미국의 480 잉여농산물이 바로 이렇게 우리 나라의 식량자급도를 결국 낮추어 온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현재의 수입쇠고기가 이렇게 무제한 들어 오다 보면 현재 50 대 50이라고 하는 수입패턴 자체가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정부의 수입쇠고기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가 오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중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도 갑니다. 일반 보통지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포장육화를 하고 있으면서 고급지육 또는 고급정육에 대해서는 일단 공매에 의해서 마치 그것이 시중에서 한우를 둔갑하기 좋게끔,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급 수입육이 일반 보통지육과 같이 전반적인 수요나 기호도에 맞추기 위해서 소포장화를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소위 중포장화라도 해서 이것이 시중에서 소위 한우로 둔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곰탕집이나 갈비집에서 '이것은 수입쇠고기 갈비요', '이것은 수입쇠고기 곰탕이라'고 표시된 집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비자나 생산자나 거의 다 손해를 보는 결과가 됩니다. 조금전에 소비자 측에서 오신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제 수입쇠고기를 사다 먹어봐도 한우쇠고기와 구별을 못하겠더라 하시는 바로 이것이 바로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식량의 자급도가 36%에 불과하게 된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정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에 밀가루에 의해서 모든 국민의 입맛이 맛들여지기 이전에, 소위 입맛이 길들여지기 이전에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개발해서 한 10년 전쯤 추진해왔더라면, 오늘날 성장해가는 우리 제2세대 소위 우리 어린 청소년 학생들이, 역시 쌀을 주원료로 하는 그런 가공식품을 역시 선호하여 더 찾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내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1,

300만섬이 남아 돌아가니까 수매할 수 없다는 논리와 똑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아까 어떤 선생님께서는 도매시장에서 한육우와 수입육은 똑 같이 경매에 붙이는 것이 좋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근본적으로 우리 한우의 사육기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고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것은 포장화해서 완전히 우리 한우와 수입고기를 한눈에 구별해서 하나의 소비패턴에 이종구조화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나라에 쇠고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부에서 어떤 물량적이거나 가격적인 면에서 개입할 것이 아니라 소위 시장경제원리에 일단은 일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암소값이 송아지값이 비싸기 때문에 모두 암소를 사가지고 새끼를 낳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백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고 하면 누가 송아지를 낳라고 하겠습니까? 송아지 없는 사육기반이 형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송아지값이 오르는 것은 일단 우리 나라 한우의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이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축협에서만 보더라도 금년도에 벌써 작년 동기에 비해서 인공수정의 숫자가 벌써 50% 이상 70%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면 한우는 자연적으로 증가가 될 거고, 많이 생산이 되다 보면 시장출하가 많아져서 소위 자율능력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굳이 정부에서 물량적인 가격측면에서 이것을 조정하려고 하면, 과거에 소위 우유가 좀 남아돌아 가니까 소위 저능력우를 도태하라고도 해가지고 또 다시 악순환을 가져오는 거와 똑 같은, 악순환을 다시 되풀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시장경제원리에 맡기고 수입고기는 완전히 우리 한우고기와 분리해서 유통 이종구조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좌 장 : 예 아주 참 전문가 이상의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 문

제에 대해서 - 지금 물가차원의 소값이 올라 있는 -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는 한 분만 더 말씀드리고, 다음 주제로 토의를 넘기겠습니다.

박성만(축협중앙회) : 아까 경제기획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입쇠고기를 그 모자라는 부분만 수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모자란다는 개념을 정립하기가 힘듭니다. 왜냐 하면 자율가격 - 수입을 하지 않고 막아놓은 자율가격 - 에 맡겨 놓으면 반드시 쇠고기가격이 오르므로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자란다는 개념을 우선 국민 1인당 쇠고기를 전체 소비량을 얼마나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으니까 모자란다는 개념이지 그렇지 않고 수입을 하지 않고 국내산만 가지고 충당한다고 할 때에는 모자란다는 개념이, 수입할 때의 모자란다는 개념하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좀 올라가겠지만 수입을 안 한다고 전제되었을 때에는 그 모자란다는 개념이 상당히 희석이 되어,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농가가 입식, 지금 보이는 현상처럼 입식을 증가시켜 다시 한우 사육기반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입에 의존하다 보면 그 한우기반 자체가 아주 망가져 결국은 한우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밖에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물가상승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년도가 현재 1985년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듯이 85년도 소값이라는 것은 아주 바닥시세 직전입니다. 바닥시세 직전과 지금하고 쇠고기만 놓고 지수대비를 한다면 엄청나게 올라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품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하방 경직성이 있는데,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은 그때의 작황에 따라서 혹은 생산에 따라서 높낮이가 아주 심한 것입니다. 심하기 때문에 특정년도가 기준년도로 되었을 때 그때 가격이 폭락된 상태였다면 앞으로 지수 기준년도가 바뀔 때까지는 계속 물가상승의 주범으로 물리게 됩니다.

그런데 87년도 바닥시세가 되기 직전에 2~3년 동안 소값이 계속 떨어졌으며, 그때 소위 3저의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3저 호황 때는 쇠고기값이 내려 우리가 3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말 제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물가상승 때만 쇠고기가 자꾸 들먹거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인식에는 쇠고기가격 하락이 물가하락에도, 물가안정에도 기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없고 오로지 물가상승에 주범 역할만 남아있는 그런 악명 높은 쇠고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우육과 수입육을 소비자들이 실제로 구별을 못한다는 것결 자꾸 강조를 하셨는데, 강조를 한다는 자체가 수입육 소비를 더 권장하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산품을 쓸 때 특정한 상표를 많이 찾기 마련입니다. 특정한 상표를 찾을 때 소비자는 심리적으로 특정한 브랜드 네임 벨류를 찾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쇠고기도 일종의 상품이라고 봤을 때 수입육과 한우육과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수입소로 들여왔던 국내산 그런 것하고 다 비교할 때 다 같이 개개의 상품이라고 볼 때 한우육은 브랜드 네임 벨류가 엄청나게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육으로 단기적으로 물가를 잡아야겠다는 이런데만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한우의 브랜드 네임 벨류를 자꾸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우사육기반이 취약해졌을 때 한우사육기반을 늘려보기 위해서 혹은 또 한우가격이 워낙 다운됐을 때 또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한우육 쇠고기를 먹자고 장려해봐야 그 때는 한우육이나 수입육이나 똑 같은 쇠고기를 비싼 돈주고 사먹는 사람을 마치 비합리적인 사람인 양, 비이성적인 사람인 양, 이렇게 자꾸 손가락질 하는 결과가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른 공산품에서도 마찬가지로지만 남들에게 잘 보이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꼭 맛으로만 한우육하고 수입육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한우육에 대한 상표값을 너무나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브랜드 네임 벨류를 그대로 계속 지켜가고, 그 다음에 축우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축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

해서는, 앞으로 수입육 장려를 위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맛으로서 차이가 없다 이런 것을 더 이상 거론이 되지 않도록 해가지고 한우육에 대한 브랜드 네임 벨류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이윤희(경제기획원 국민생활과장) : 85년도 기준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85년을 기준으로 해서 올랐다 내렸다 우리가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물가지수 편제자체가 85년도에 소비지출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돼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좌장 : 두번째 우리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경여(소비자연맹 부회장) : 지금 축협에서 나오신 분이 맛을 전혀 구별 못한다는 것은 수입쇠고기를 권장하는 일이라고 하셨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4천원짜리하고 만원짜리 있는데 4천원짜리 갖다가 만원씩 받아먹는 그런 상인들의 기업윤리 같은 건 하나도 생각 안하고, 우리 소비자는 3천원짜리 그거 싸고, 맛있고, 질 좋다고 하면 그것 먹을 자유 있습니다. 그 분은 그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지만, 상인에 해당하는 쪽인지 생산자 쪽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소비자가 소비자의 욕구하고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요.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라도 생각합니다.

좌장 : 아까 한우육과 수입육 그 구분을 못하면서 구분을 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한 그 관계는 지금 오히려 그 이야기를 안함으로써 한우육을 더 보호할 수 있는냐는 그것은 좀 달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에 나오는 대부분의 고기가 수입육과 젓소고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고소득계층이 점차 한우육 달라고 하면 그것

을 주는데, 이제 한우육도 맛이 없는 고기라고 생각하게 되면 점차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우산업의 장래를 내다봤을 때에, 참으로 우리 한우육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빨리 구분을 지어서 우수한 쇠고기를 비싸게 해서 소비자에게 자꾸 맛을 들여서 수입육하고 분명히 질의 차이가 나게끔 빨리 교육을 시키고, 빨리 보호를 해서 한우육을 비싸게 파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만일 이것을 단기적으로만 봐가지고 그냥 이것이 이것이다. 혼합을 해서 소비자에게 착각을 일으키게 되면 소비자가 한우육 다 등돌리게 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지 단기적으로 보는 것하고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것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냥 봉사 제 닭잡아 먹어 버리면 큰일나니까 잘 연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경여(소비자연맹 부회장) : 지금 원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지속된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수입육을 파는 대형백화점 같이 질 좋은 고기로 어디서든지 대형으로 많이 팔 수 있는 곳이 더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좌장 : 그것은 축협에서 점차 하고 있고 앞으로 아주 엄격하게 하겠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사실 오늘 물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시 분은 경제기획원에서 직접 담당하는 과장님이 나오셨고, 소비자대표 나오시고, 아마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소비자측에서도 몇 분이 나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생산자가 워낙 많이 와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못할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분위기는 소값이 좀 높다한들 그게 큰 문제냐?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만 밖에 나가서 일반 공청회나 다른 도시민이나, 학자나, 정치인들이나, 행정부 사람들 하고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차원에서 이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이것 하나만, 이것 하나

만, 전부 그러고 나면 물가를 못잡는다. 또 물가가 올라가 놓으면 우리 경쟁력, 나라 전체가 문제가 되니까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꼭 무슨 농산물값 이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중요하다 이런 인식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금 전북에서 오신 조합장님 등 여러분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급히 서둘러서 그냥 무리하게 마치 때려잡는 식이 되어 놓으면 다른 문제가 많이 배태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니까 결론일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정리를 하면, 한우육하고 수입육하고 이 한 가지는 분명히 냉동을 해서 들여오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질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걸 엄격하게 분리를 시켜서 한우시장은 한우 수요공급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도록 자율성에 맡겨주고, 수입육은 수입육대로 수요공급에 맞추어서, 이것은 제 EPB 얘기를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가차원에서 중요하다면 그것은 정부가 수입육에 관해서는 물가차원에서 가격을 어디에다 맞추어야 된다면 수입을 더 한다든지 덜 한다든지 이렇게 수급을 조절해 가면서 별도로 맞추는 방향이 정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분은 무제한 수입하시는데 무제한 수입은 아니고, 금년에 수입이 7만, 8만4천톤은 작년 재고가 넘어온 명년재고로 넘어간 것까지 합해서 그런거고, 실수입량은 8만2천톤이지 10만톤은 아닙니다. 명년에 넘길 것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8만2천톤인가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둔갑입니다. 둔갑 - 우리 소비자대표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둔갑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둔갑되는 것은 소비자나 또 생산자에게 보탬이 못되기 때문에 둔갑을 분명히 막아야 한다. 유통질서상에서 어떻게 막을 것이냐, 81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조합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나온 두 분 실천에 아주 핵심 과장님이시니까 이걸 실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입육은 무조건 얇게 썰어서, 과자처럼 얇게 썰어가지고 얼려서 포장을 꼭해서 문밖에 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아예

한냉에서 문밖에 출고하면서부터 상인들 손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은 완전하게 모양을 바꾸어버린 격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한우육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신선한 정육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해버리면,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수입육은 수입육대로 한우육은 한우육대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 대신 한우육은 지금 축협에서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안심, 등심, 채끝 하여튼 엄격한 구분을 품질보증으로 해서 같은 안심이라도 그 영역에 따라서 다르고, 암수에 따라서 다르고, 비육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술자를 양성해서 아주 최고급육은 수급에 의해서 높게 받고 그 다음 육은 그 다음 받고, 한우육에서도 제일싼 부위가 있는 것은 3천 원에도 주고, 2천 원에도 주고, 한우육에도 2천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엄격한 등급을 통해서 소비자가 원하게끔 이렇게 축협이 질서를 잡아야 합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해서는 안됩니다. 축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만 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서울에 너댓군데 해야 하고, 대도시에 몇 군데씩 하고 주차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서 광고도 하는 등, 선도하는 일을 빨리 하셔야 유통질서도 잡고, 또 원하면 쇠고기수입육은 싸게해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또 농가도 바싸게 받아서 소득도 보장하고, 질서를 잡아나가는 거 뭔가 신뢰도 높히고 질서도 잡아나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충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한우에 의한 고급육생산은 과연 가능한가? 그렇게할 수 있는 것인가? 한우에 고급육으로서의 일본의 화우처럼 과연 이것이 개방화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육성이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해서 한 가지의 희망이라도 찾아보고 오늘의 공청회를 마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석진(영남대 교수) : 한우의 차별화의 문제는 마치 한우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만능인 것 처럼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만 물론 차별화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우리에게 송아지를 수입해 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난 일본 축산신문위원회 위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송아지가 일본에 가서 화우로 바뀝니다. 도매시장에 출하가 될 적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단 차별화를 할 경우에 어차피 이것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비싸진다는 이야기는 축소균형을 지향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소사육에 대하여 축소균형을 지향해야 하느냐? 여기서 생산자가 차별화와 동시에 비용절감할 수 있는 자구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한우는 지금 일본에서 북쪽에서 키우고 있는 소위 말해서 흑우 단각종이라고 하는 것이고, 구주지방에서 키우고 있는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아까 오시」라는 한우를 일본이 도입한 전용육우인 시멘탈과 교배시켜 품종을 고정시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체구가 상당히 큼니다. 최근에 구주지방에서 그런 빨간 소의 품종을 계속적으로 개량을 해서 이미 상당히 좋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또 고지대학 같은 곳에서는 우리의 한우를 갖다가 거기에 대한 육질실험을 하고, F1을 만들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우리 한우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 좋은 형질적인 면이 있다. 유전적인 형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량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차별화만 가지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절감이 뒤따라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좌장 : 또 다른 분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윤영탁(중축개량협회) : 육류등급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

데, 그것에 앞서 한우가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가장 큰 슈퍼에서 운영 하는 「다후에이」라는 목장에서 직접 사육이 되고 그것이 도축되는 전과정을 제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과, 데이터를 제가 한번 신문에도 기고한 적이 있었는데, 한우의 우수성이 거기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키우는 것은 보통 500kg 전후입니다만 그쪽에서는 700kg까지 키웠습니다. 저희 한우도 700kg까지 클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단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는 우선 전구, 어깨가 일본 소보다 발달돼 있다. 그리고 두번째는 한우는 일본소보다 머리 비율이 많이 나온다. 그리고 뼈가 약간 굵다. 그리고 색이 짙고 열은 것이 균일하지 않다. 송아지를 가져갈 적에 연령을 알 수 없었다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한 것 외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시하는 고기 조직과 상강도 마블링 형상은 일본 것보다 좋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적에 한우의 우수성은 저희들 보다도 일본에서 먼저 알고 있고, 그것을 수입해가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갑작스럽게 한우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수입이 중단됐는데, 이러한 것은 결국 육량이 아니라 육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유통과정에서 육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나타내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지육의 경매 형태가 결국은 외관만 보고서 그것을 갖다가 가격을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이것이 정말 한우니까 좋다는 그런 관념만 가졌지, 왜 이것이 좋은지 객관적인 것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한우가 육질이 좋다, 좋으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육질판단을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생산자들에게 당신이 기른 소는 육질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표로 대충 제시해 주어야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출하한 소의 경락가격하고 등급하고 그것을 비교해서 사양지표로 사용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일본에서는 1962년도에 시작이 되어, 수입이 올 4월서부터 완전 자유화 되고 있습니다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에 가서 「다후에이」 회사 사람들과 수입업자하고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한 수입업자, 그 사람은 한국사람이지만 일본에 큰 쿼터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수입을 하는 사람인데 큰일났다는 이야기에요. 왜 그러느냐 했더니 자기가 수입량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수입고기를 들여왔는데, 이것이 팔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왜 안팔리냐 그랬더니 지금 가격을 아무리 내려도 팔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일본 이미 소비자들은 육질에 따라 고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준을 1962년서부터 지금까지 쪽 경험에 의해서 얻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요리개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상당히 늦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우리는 수입이 이미 되고 있고, 50% 이상 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우의 육질이라고 하는 것은 좀전에 롯데백화점에서 오신 전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소비자들이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입육과 동등하게 나타났을 적에, 판매되었을 적에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육류유통에 가장 첫 단계인 도체 지육서부터 규격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진(한국냉장) : 어떤 결론은 내릴 수 없겠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질하고 여러가지 한우의 고급육 생산이라든지 어떤 정책방향으로 거의 기정 사실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고급육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통

상 우리가 육질에서 고급육이라고 하면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먹어서 맛이 있는 것 그렇게 볼 수 있는 것과 또 한쪽으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놓고 볼 때 과연 이것이 고급육이라고 할 때 소비자가 거기에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블링이 좋은 소, 그러니까 한우가 어떤 마블링을, 저희가 색깔이 잘 섞이는지를,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본쪽에서 인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 그리고 또 일본 소비자들은 마블링에 대해서 마블링 좋은 고기에 대해서는 높은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것이 고급육인데 과연 우리 나라에서도 그것이 고급육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지 않으면 마블링 좋은 고기를 생산해 놓고, 소비자가 나중에 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때 보는 손해는 역시 생산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 마블링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준을 두는 것은 일본하고 미국쪽입니다. 그러나 유럽쪽에서 생산하고 있는 어떤 겸용종에서 나오는 이런 고기도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저급육이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키우는 마블링 좋은 소는 고급육이다 라고는 대답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마블링이라는 것은 분명히 육질의 한 요인인 것만 사실이고 그것을 발전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정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실 쇠고기의 육질은 아무리 마블링을 한다고 해도 마블링해서 먹을 수 있는 부위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등심, 안심, 채끝부위 그 나머지 부위들은 사실은 불고기로 해 먹으면서 그 마블링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인정이 안됩니다. 육질을 이런 상태에서 놓고 봤을 때, 그보다 중요한 부분은 한우를 살리는, 한우의 육질을 살리는 부분은 한쪽에서 마블링이 좋은 소도 생산을 해야겠지만 도살, 현재의 도살시스템, 또 그 다음에 무조건 열려서 파는 그런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한우의 육질을 개선한다는 것은 지극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 하

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마블링 좋은 것을 사육도 해야 되겠지만 다른 한쪽에선 유통과정에서 도축과정의 개선이라든가, 이것을 정말 냉장육으로 정말 한우를 유통시켜 수입육과 구분하는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더 발전을 시킨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육 가공공장을 활성화시켜 상자육으로 해서 유통시키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현재는 여러가지 도축장들, 기존 도축장의 문제, 신규 도축장허가는 제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인으로서 좋은 근대식 도축장을 만들고 싶어도 우선 그 지역 도지사로부터 도축장 허가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 권역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시설개선을 했는데 당신네들은 뭐요? 하고 기존 도축업자들의 저항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근대화된 도축장 개설에 여러가지 저항요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냉장육 유통을 통한 소비자홍보, 그것을 위한 소비자홍보를 하는 반면에 한쪽에서는 도축시설기준에 대한 것을 대폭적으로 개정을 해서 기존에 있는 도축장들은 어떤 유예기간을 주어서 차차 개선을 해나가게 하고, 신규로 정부가 정한 기준내에서 도축장을 근대식 도축장을 짓겠다는 사람에게는 개방을 하는 한우육질 개선에 대한 정책을 유통쪽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좌장 : 방금 말씀해 주신 분은 식육가공분야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에 아주 드문 전문가이십니다. 또 한우육에 대해서 고급육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전영석(롯데백화점 정육낙농구매과장) : 수입육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지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1991년도 1월달에 가격자율화가 된다고 해서 90년도 12월달에 산지를 다니며 소를 사러다녔는데 소를 내놓지 않아요. 왜냐하면 91년도에 자율화가 되니까 가격이 오르

는데 무엇하러 내놓느냐, 그래서 소를 그 당시 11월말서부터 가격이 계속 오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소출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부다 출하를 안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고급육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고 말씀하시는데 가격자율화 이후의 가격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습니다. 기대한 대로, 예상대로 가격이 올랐어요. 농가들이 생각할 때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4월에 등급화가 임시로 실시되고 7월달에 실시가 되는데, 그때 실시될 때는 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우이기 때문에, 한우라는 것 때문에 등급화가 되면 지금 시세보다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수입육을 아무리 많이 풀어도 계속해서 지금 한우가격이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기간이 15개월 정도 비육을 했는데, 5월달 정도되면 20개월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5월달부터 물건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가격자체가 조금 누그러지는데, 7월달에 등급화가 실시가 되어서, 일본처럼 마블링상태가 가장 주종이 되어서 등급을 책정하는데, 한우는 지금 가격보다는 낮게 책정될 거라고 저희 유통업체에서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블링에 따라서 고기를 구매할 것인데, 한우라는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사서 해보면 일본처럼 기반이 안되어 있어요. 일본은 등급화를 한 20년이상 실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서 지금 일본 화우하고 수입소하고 가격차를 벌려 놓은 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지금 받아들이면서 실시도 얼마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육하고 한우하고의 가격이 일본처럼 질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격을 별려봐도 된다고 하는 그 관념 때문에 등급제를 시작했는데 실제적으로 수입육하고, 국내산육하고 질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가격차이만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월달에 과연 한우가,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과연 1등급을 받을 만한 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우가격이 하락할텐데 그때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가격이 하락되면 대량 출하를 합니다. 대량출하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가격하락이 5월달 이후로 7월달부터 가속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좌장 : 전영석선생님께서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축협에서 연구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제 1등급 한우육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비자가 점차 수입육하고 한우육하고 질에 차이를 못느끼는 한 결국 수입육, 수입육과 같으면서 점차 이런 식으로 인식이 내려가 버리면 결국 일본처럼 국내 화우육하고 수입육하고 가격차를 넓히는, 질에 의해서 늘리는 것을 우리가 실패를 하면 고급육으로의 한우사육을 육성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특히 축협에 계신 분들 생산자들은 이것을 알고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기 전에 한두분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진교복(낙농육우협회 이사) : 제가 연전에 일본에 비육축산을 견학할 때에 일본에서는 좋은 육질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홀스타인 수소를 전부 거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육질을 생산해 보겠다고 거세기계를 사가지고 와서 수십두를 거세를 해서 비육을 했다가 엄청난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다. 수년전에 일본에서 우리 나라 한우 수송아지 300kg짜리 수천두를 수입해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일본에서 다시 24개월을 비육시켰다고 하는데요. 우리 나라에서 지금 육성 단계에 배합사료 일변도로 육성을 시켜가지고는 육질이 좋게 비육이 안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kg짜리를 여기서 구입을 해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소가 요구하는 생리에 의한 육성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제대로 다 발달된 다음에 비육을 해서 700~800kg 수준에서 내면 그것이 육질이 대단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것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금년 중에 일본에 가서 비육하는 실정을 견학

하고 오려고 합니다. 시간과 가격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러한 고급육을 생산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과 가격이 보장되는 전제가 붙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 수입육과 한우의 질을 구별을 못한다, 잘 구별하기 어렵다, 대동소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우선 사골이라고 하는 뼈를 한 30분만 끓여보면 맛에 대해서든지, 빛깔이 대해서든지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올 수 있고, 또 육회를 해서 잡수어 보시면 금방 그 차이를 알 수가 있으나, 쇠고기 소비가 되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 정육점에 가서 직접 사다가 먹은 소비와 또 음식점이나 요리집을 통해서 요리가 된 것을 사먹는 간접소비 두 가지가 있는데, 간접소비에서는 도저히 알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리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싼 수입쇠고기를 사다가 조미료를 아주 두리몽 수리를 해가지고 그 원 맛을 거의 감추는 이러한 조리방법을 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사다가 먹는 것과 음식점이나 요리집을 통해서 먹는 것 비율을 따진다고 하면 간접소비 쪽이 훨씬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구별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확실히 두 가지를 사다가 놓고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충분히 상식이 없는 사람도 구별이 됩니다.

방청석 : 7월부터 등급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등급제실시와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등급제실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62년에 실패한 것인데 단 문제는 제도만 바꾸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대한 생산기술 보급이 전혀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산자측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일본에서 소위 차별화를 철저히 한다는 쇠고기 메이커들은 전부 일관경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번식우부터 자기들이 선발해서 품종을 선발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밀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거기서 출발해서 사양방법을

특수한 방법을 쓰면서 끝에 비육까지 일관경영체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이런 농가들은 4월1일부터 일본에 쇠고기수입이 자유화되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농가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차별화를 그냥 말만 차별화해서 등급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앉아서 되는 것이 제대로 아닙니다.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종축개량협회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지도 보급이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철호(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경제실장) : 지금 우리가 쇠고기 수출문제가 나왔는데 현재 가격으로는 수출하기는 곤란합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한 800두를 수출했습니다. 그때 수출한 것이 220~260kg정도 중소로 수출을 하면, 일본사람이 받아가지고 육성하고 비육시켜 팔았는데, 그 당시의 가격이 170만원 수준입니다. 그때면 우리가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높아가지고선 수출은 어렵지 않은가? 좀 가격을 낮추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창(충남 아산 영림축산) : 고급육생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급육생산은 우리 생산자는 양질의 쇠고기를 생산하려고 노력하는데, 정육점에서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정육업체가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하루에 파는 양, 일주일에 파는 양 때문에 큰소를 잡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사람들이 거세된 한우를 가지고 가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도저히 물건을 못팔아 먹겠답니다. 물건은 좋은데 지방이 많이 끼어가지고 수지타산이 안맞는다고 이겁니다. 또 이번 구정때 내가 소를 650kg에서 제일 적은 595kg짜리를 팔아 보았는데, 한우를 사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왜 안사느냐 하면, 우리 정육점에서 소 한마리 파는데 450kg짜리 가져다가 팔면 10일만에 파는데 당신네 소를 사가게 되면 15일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고기는 좋은데 육색이 변해서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450kg

짜리 3마리 잡을 것을 당신네 소를 가져가게 되면 2마리 밖에 못 잡는다. 그러면 정육은 똑같이 나오는데 부산물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못잡겠다. 정육점에서 제도적으로 도저히 한우를 고급화시키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정육점 하나에 프레이엄이 2,0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붙어 거래되다 보니까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사업을 선택을 받는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것 안되겠다고 신고제로 해서 아무나 신고를 하면 다 장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까지 가격자유화를 안시키기 때문에 경쟁이 없어지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생기기만 했지 고기는 많이 팔지 못했다 이겁니다. 그것이 고급육 생산하는 데 큰 걸림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좌장 : 한우를 고급육 산업으로 육성할 수 없는가? 대충 정리를 해 보면 한우의 질은 분명히 다른 어느 소에 비해서도 육질면에서는 우수하다. 이걸 여러사람들 자료와 경험을 통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질은 우수하다. 그러면 수요가 있느냐는 이야긴데 저는 잠재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도 몇 분 이야기 하셨는데 잠재수요가 있다고 하는 증거로서 이 산림청 앞에 조그만 평범한 보통 식당인데, 징기스칸 요리가 유명합니다. 그 징기스칸 요리가 얼마하나 보면 1인분에 12,000원 정도 받습니다. 백지장 같이 얇게 썰어서 한접시 나오는데, 한번은 1인분을 수건에다 싸가지고 무게를 달아서 그 전문가와 같이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얼마냐 하면 100g입니다. 12,000원짜리 쇠고기 징기스칸이 100g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육점에 가서 이 고기가 어떤 고기냐고 알아보았더니 안심도 아니고 등심이었어요. 등심인데 1,300원 어치의 양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12,000원인데 거기다 채소좀 넣어가지고 물에 데쳐서 먹는 것이 거든요. 그럼 이게 100g이면 7만원 주고 먹는 겁니다. 물론 채소나 인건비가 있겠지만 대충잡아서 600g짜리 5만원 주고 먹는 사람이 있으면서도 그

냥 쇠고기는 8,000원이나, 9,000원이나 받는 걸로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또 명절때 쇠고기 보따리 선물이 트럭으로 신고 다닙니다. 서울에서 쇠고기 선물, 여기다가 한우육으로, 마블링이 있는 최고급으로 해서 조그만 해도 비싸게 값진 선물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세계에서 제일 끈적끈적한데, 선물을 잘 합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고급육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이 올라가기 때문에 고급의 어떤 특산품이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 기분 좋게 하려면 값이 싼 음식보다는 이런 고급 한우육으로 특육이라 해가지고 대접하게 되면 저녁맛도 낫을거고 이런 저런 것으로 봐서 잠재수요는 많다. 그러나 이 수요를 고급품으로 만들어서 수요를 개척하지 않으면 아까 여러분이 염려하신 것 처럼 수입육하고 혼합이 되어서 그게 그거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가 등을 돌려버릴 위험이 지금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현실적으로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급육질의 한우육을 생산하느냐, 이걸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산기술, 방금 조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관된 체계, 생산기술 지도, 그 다음에 가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경제기획원에서 지금 이과장님 나오셨는데, 이러한 고기는 오히려 우리가 수출도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센티브를 유인을 가격에 대한 이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물가차원 밖에서 주어야만 이런 산업을 살려 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점에 특별한 배려가 있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영진박사께서 이야기하신 근대적인 도축시설이라든가, 또 김재창선생님께서 정육점 이야기 하셨는데, 그런 점에 등급제가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번에 덴마크, 화란을 가보니까 돼지고기입니다만 물론 쇠고기도 있는데, 가공고기 다루는 것 - 썰고, 등급매기는 것들을 2년간 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이 2년동안을 고기다루는 것만 공부를 해요. 그것도 나와서 바로 안돼니까 몇년 경험을 쌓아야 1등, 2등 기사자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인재나 교육이나 학문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이런 등급이나 처리가공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알려주느냐, 어떤 채널을 통해서, 마케팅 경로를 통해서 넣어주느냐? 그 다음에 수입육과 한우육을 어떻게 구분해 주느냐, 시장 격리문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해 나간다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UR 이후에 우리가 많지도 않은 품목들인데 특히 품종적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후손들을 위해서도 이걸 우리가 고급육 산업으로 육성해 가는 길 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대충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중요한 분을 한 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공청회 가장 중요하신 분으로 원래는 발표를 하시려고 했는데 중요한 일 때문에 조금 늦게 오셨는지 방청석에서 시종일관 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김정용 국장께서 지금 나와계십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용(농림수산부 축산국장) : 오늘 아주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각계 각층에서 이런 자리를 대표하시고, 소비자를 대표하시고, 또 생산자, 조합 또 유통관계종사하시는 분들, 낙농비육우협회, 그리고 특히 오늘 이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하루 종일 어려운 이 과제를 이끌어 주신 우리 허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아침부터 와서 이것을 꼭 좀 듣고 싶었는데, 아침 시간에는 제가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오후에는 처음부터 꼭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공청회를 하게 된 배경에는 꼭 불가안정 이라는 이런 단기적인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고, 우리 축산 특히 우리 쇠고기문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육기반 위에 올라 설 수 있느냐, 그런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걱정을 하고 우리 한우산업이 바람직한

장래에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이런 것을 축산을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모여서서 한번 지혜를 짜보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허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저희가 당초에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토론들이 이루어지고 좋은 말씀들, 제안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더할나위 없이 뜻 있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4월1일이면 수입이 완전 개방이 됩니다. 그래도 일본의 화우 산업은 화우산업대로 걸어 나갈 수 있는 길을 탄탄하게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만시지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한우가 나중에 개방의 물결이 더 거세어진다고 하더라도 한우는 한우대로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더욱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토론하시는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유통구조문제, 이건 정말 저희 한우산업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이 유통문제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제도적인 면이나, 또 물량면에서, 시설면이나 이런데 부족한 점은 물론이거니와 소비자들 하고 같이 우리가 유통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도 인색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좌장 : 김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장이신 김경남과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김경남(농림수산부 축산물유통과장) : 오늘 말씀 중에서 정부입장이나 방향중에서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농산물 장기수급 판단, 이 문제를 정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축산물 수급추정을, 앞으로 2000년대까지의 경제예고지표나 이런 것이 공표가 되고 수입개방 계획

등이 어느정도 윤곽이 들어나면 그런 것을 모두 감안해서 2000년대까지 수급추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해보겠습니다. 판단을 해서 수급의 부족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나갈 것이냐 이것도 아울러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와 수입쇠고기의 유통의 차별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포장육 가공으로 유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차별화로 말씀하셨는데 이 포장육 가공의 유통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신 분이 안계십니다. 그리고 수요예측이 가정소비만이 아니고 상당히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외식수요가 많아서 고기수요 형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이점을 감안하고 수요추정에도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포장육으로 가공을 했을 때에 품질의 향상을 가져 올 수 있겠느냐, 오히려 역행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60% 수준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비율을 더 늘리는 것은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전량 포장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안정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문제는 축협의 생산비를 기준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정대라는 것이 글자 그대로 안정대 수준이 너무 크게 변동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비 수준이 굉장히 높은 상태가 반영이 되어 가격은 하락하는데, 안정대 가격은 높아지는 이러한 모순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안정대 그 자체의 큰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안정대가 제시하는 가격 수준이 너무 사육을 진작시키는 수준이 되어도 안되고 또 너무 사육 의욕을 저해하는 수준이 되어도 안되기 때문에 가격안정대 결정방법을 공식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육류도체 등급제가 7월1일 시행을 한다고 알고 계시는데, 당초 계획은 그랬습다만 이것이 법제화되어야 실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변경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육 반입문제, 내장의 불공정한 거래문제, 계류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제도적으로 개선을 할 것은 개선을 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을 해나가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육점 단속문제, 결국은 고급육을 생산해서 최종적으로 소매단계에서 모든 것이 차단이 된다 하는 이런 문제, 소비자가 속는 문제 등에 대한 소비자 홍보가 하나의 견제가 된다고 봐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육류등급제, 부위별 차등가격제에 대한 홍보책자를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마련하여 소비자단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하여 고기를 알도록 하는 이런 작업을 병행해서 하고, 정육점 단속관계는 지금 식품위생법에 부위를 진열하고 파는 것을 의무화 시킵니다. 의무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영업정지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식품위생법에 정식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곧 입법예고가 될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육점에 대한 지도는 철저하게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장 :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정부를 포함해서 전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청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할 말이 있는 분들에게 짤막짤막하게 1분씩 드리고 이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정찬길(건국대 교수) :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쪽 공청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참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한 육우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생산·유통·소비면에서 동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동태적인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쇠고기 시장이 앞으로 수입이라는 그런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수입의 쿼타제가 당분간 계속되고 있고,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쿼타제를 포기하고 완전 수입개방으로 앞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

나, 그렇다면 지금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진행되어 왔고, 되고 있는 소위 정부 우리가 쇠고기수입에 대한 쿼타제도에 제도화 그 다음에 수입 완전자유화로 갔을 때에 국내 한육우산업에 혹은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동태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한 세 기관에 동시에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한 다음에 각각 기관에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공청회를 하고,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동태적인 산업구조 조정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미국이 일본 쇠고기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쇠고기시장을 아는 것 일본사람이 일본 쇠고기시장을 아는 것보다는 미국이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한국에도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서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미국에서 한국 쇠고기시장에 관한 연구를 해놓은 것이 7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허원장님께서 해놓은 것에 대해서도 칭찬을 많이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90년도 말까지 무역적자가 800만불이 생기는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90년도 말까지 우리가 그만큼 지불하고 쇠고기 사먹어야 된다 이겁니다. 또 어떤 보고서에 보게 되면 70만톤 정도, 50만톤부터 70만톤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이 제아무리 소마리 수를 늘려봐야 20만톤 이상 자급이 안된다. 나머지는 미국에서 가져다 먹어야 한다.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이제 아까 김과장님께서 수급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이겁니다. 제가 해본 것도 차이가 생기고 그래서 현재 차이가 60만두부터 100만두 이상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좌장 : 지금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 말씀중에 언젠가는 수입을 완전 개방화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정부는 협상이지만 최선

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버틴다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자간의 협상이나 GATT라는 것이 한 나라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입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종화(충남도청 축정과장) : 도청에 있으면 농림수산부에서 시책을 도입하여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이야기 쪽 듣고 있었고 또 앞으로 일하는데 깊이 참고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그런데 간간이 유통문제가 나왔습니다. 제목하고 조금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잡고 넘어가야 될 것이 유통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산자단체가 유통관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수입쇠고기 판매점과 앞으로의 고급육 판매는 별도의 체계를 거쳐서 소비자한테 비싼 값으로 가야하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협동조합에서 유통에 참여하는 방법이 실제 일선에 나가보면 어렵습니다.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을 일반인이 안하니까 축협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시설투자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두리에다 이렇게 해놓고, 또 지금 공판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공판장을 중부권, 남부권, 호남권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도 대도시 소비지하고 먼 변두리에다가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비용 때문에 그렇고 기존업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공판장이나 부분육 가공공장을 어디에다 할 것이냐, 현재 대전에는 도매시장이 있어요. 이 도매시장 옆에다 공판장을 다시 만들어서 될 것이냐? 거의 같은 대등한 경쟁자로서 거의 어렵고, 현실적으로 우리 논산에 축협에서 만든 88년도 육류유통센타를 해놨어요. 그것은 옆에 도축장이 있는데 또 해놓았다 말이죠, 그래서 그게 경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특급도축장으로 허가를 내주지를 못합니

다. 그런 것이 예가 되는데 축협이 당연히 유통에 참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여하는 비용부담을 너무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대전에 공판장 만들고 싶으면 대전 공판장을 조금 비싸더라도 사가지고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비용부담을 정부에서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축협이 유통에 관여를 할 수 있고 가공에 참여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유통 2차산업이나, 가공 3차산업이나 이런데에서 생긴 그런 부가가치를 똑 따먹고 떨어지면 축협이 참여했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고급육생산을 한다고 농가한테 웃돈을 50%, 30% 더 주고서 사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이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우리 축산물에 움직이는 2차산업, 3차산업 단계에서 남는 부가가치 이것이 생산자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배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도 고려를 하면서 시책을 떠나가 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좌장 : 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강원대학에서 김경량 교수님 나오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십시오.

김경량(강원대 교수) : 우선 하나는 여러가지 주제하고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수입육의 수입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지 않았으나, 과연 이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생산자들을 위한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똑같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위한 공청회라면 수입제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불합리성 이것이 지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 이한테 언급이 없었다는 것이 유감으로 생각되고, 다른 하나는 지금 유통이라든가 여태 공급이라든가 가격안정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있어서 축산물 특히 쇠고기의 소비형태 변화는 급격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찬길교수님께서 앞으로 동태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한 가지는 거기에서 소비자들

의 앞으로 소비형태가 요구하는 품목이라든가 거기서 고급육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여러가지가 변화하는데 유통경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정육점 일반판매업소가 약 3만7천개인가 8천개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5년내에 만개 정도로 줄지 않겠느냐, 그러면 앞으로 반은 유통형태로서는 일본이나 유럽식의 전문점, 지금 고급육을 담당하는 점문점 또는 축협에서 생각하는 축산물유통센터 이런 형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대형판매체계 지금의 큰 유통체인이라는 대형판매체인 이런 두 갈래로 나누어지지 않겠느냐, 그럼 앞으로의 대안에 있어서는 이런 전체 유통체계의 변화까지가 우리가 감안이 될 적에 그래야지 소비자가 생산자한테 이익이 다 돌아가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좌장 :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전 11시에 시작해서 한 시간 남짓 점심 시간을 빼고 무려 5시간 반 정도 참으로 진지한 근래에 보기도문 그러한 공청회를 했다고 자부합니다. 끝까지 남으셔서 이렇게 토의에 임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쇠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대한 공청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개 회 사

오늘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양축가, 학계에서 오신 교수님, 정부에서 나오신 분들,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또 소비자단체 대표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연구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해 마지 않습니다.

1980년대 중반 소값파동이 일어났을 때에는, 아마도 대한민국 농정사에 있어서 소값만큼 큰 진동을 했던 그러한 파동이 일찌기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소값파동은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유명한 사건이 되어 특히 미국 또는 호주, 뉴질랜드를 상대로 하는 쌍무, 다자간의 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소값파동은 아주 중요한 의제로 등장했습니다. 미국의 축산업계에 있어서도 한국의 소값파동 그러면 대부분이 다 아는 그러한 일대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후로 조사단이 만들어져서 농촌을 방문하고 또 3년 전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워커힐에서 주최한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농업분야 특별연구팀에서 경기도 안성지방에 가서 한우사육농가의 피해상황을 점검해 본 일까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미 농산물 교역 마찰에 있어서 하나의 주 핵심은 이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였고, 그럴 때마다 소값파동은 항상 단골메뉴로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집중시켰고, 특히 미국에서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이나 소값파동 문제가 나오면 외교가에서는 금기사항으로 되어 이야기를 잘 안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만, 83년 3월에 전국의 송아지 평균 값이 117만원까지 올라가 역사 이래 이렇게 송아지 값이 올라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때 판단하기를, “큰

일 났다”. 그래서 마지막 버스를 타지 말자고 여러 신문에도 기고를 해서 농민들에게 100만원 이상 오른 송아지를 사지 말도록 안간힘을 쏟았는데 결과적으로 100만원 이상 오른 송아지값 때문에 농민들이 너도 나도 송아지 입식을 선호하여 소사육이 과잉이 되어 85년 전후해서 유명한 소값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어떠한 충격이나 사건도 한번으로서 족한 것이 아니냐, 두번 다시는 이런 것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서 우리 농업분야가 매우 어렵고, 또 농민들도 새로운 방향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어려워하는 이런 시점에서 또 다른 소값파동이 일어나 충격을 준다고 한다면 우리 내부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우리 한국인 특히 우리 700만 농민들에 대한 세계적인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큰소 한 마리 값이 220만원 이상 올라가고, 송아지 한 마리 값이 80년대 중반 최고값인 117만원 보다 더 높은 150만원까지 올라 갔습니다. 그동안 물가가 올랐으면 얼마나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송아지 값이 150만원까지 올랐다고 하면 물론 생산자들이 얼마나 알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하나의 파동을 유발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똑같은 그 쓰라린 경험을 다시 우리가 반복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하는 과정에서 이론과 전략이 사람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나라 한우 쇠고기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개방화 시대에 포기 내지 대폭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분도 있고, 또 일부에서 세심하게 드러다 보신 분들은 다른 농산물은 그렇지 않은데 쇠고기에 관한 한, 국민 대다수가 수입육은 좋지 않고, 한우육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들 한우육고기를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산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소비자는 고급식품, 고급농산물을 선호하게 되고

또 고도로 올라가 마지막 식도락을 즐기는 예술단계에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쇠고기 한근에 10만원 이상 주어도 참으로 좋은 것이면 그것을 또 더 선호하게 되는 것이 지금 식품소비형태의 변화입니다. 일본의 화우를 보더라도 일본사람들이 잘 사육해, 고급육을 만들어 세계 쇠고기 수출국의 하나인 미국의 시장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식품이 고급화가 되면 될수록 질 좋은 쇠고기를 먹는 고소득층이 있고, 그것은 결국 기술적으로 섬세하게 사육한 그런 쇠고기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의 화우보다 한국의 재래종인 한우가 색깔도 좋고 향기도 좋고 그래서 일본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한우를 생소로 사가겠다고 하는 제안도 있을 정도로 한우가 의외로 좋다는 것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고가육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수출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근 축협에서 등급, 가격 이런 것을 자유화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심, 등심 같은 것을 참으로 엄격하게 구별해서 시장의 수급사정에 따라 한우 쇠고기의 우수한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선 보임으로써 시장을 개척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까지 결들여서 UR이후에 우리 나라 한우 내지 쇠고기 산업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겠는가?

여러 가지 의견과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과도기에 오늘 오신 여러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담당을 하시는 분, 또 양축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참으로 좋은 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자리에서 자기의 주장 뿐만이 아니라 남의 주장을 듣고, 흥금을 털어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함으로써 소값파동을 미리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의 한우산업의 나아갈 방향,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대처할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공청회는 매우 유익한 것이고 또 불안했던 우리 농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온 나라가 지금 경제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

를 두고 있는 물가안정에도 기여를 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함께 더 나아가서 수출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다면 오늘 공청회는 매우 유익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바쁘신데고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신 각계의 대표들께,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시간이 나는대로 여러분이 최대한 토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끝까지 동참하셔서 좋은 결실을 맺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1년 3월 2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허 신 행

참석자 명단

좌	장	허신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학	계	정찬길 (건국대학교 교수) 조석진 (영남대학교 교수)
정	부	이용희 (경제기획원 국민생활과장)
생산자단체 및 양축농가		이기복 (축협중앙회 이사) 박신호 (종축개량협회 사무국장) 김재창 (충남 아산 영림축산)
유통업계		진교복 (낙농육우협회 이사) 전영석 (롯데백화점 정육낙농구매과장)
소비자단체		이경여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빈

면

연구자료 D59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한 공청회 결과보고서
쇠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적은날 1991. 3.

펴낸날 1991. 3.

발행인 허 신 행

펴낸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962-7311~5)

130-05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등 록 제5-10호(1979. 5. 25)

적은곳 (주)문 원 사 739-3911~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본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